2024 02 VOL.204

문화 + 서울

2024 02 VOL.204

서울문화재단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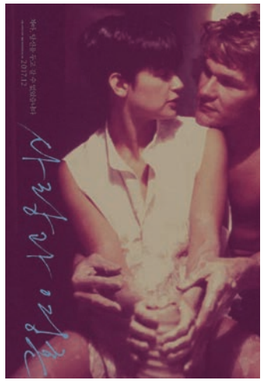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 소식

송파구
석촌호수를 무대로 삼아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이는 축제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가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다. 전구 2만 개로 만들어진 축제 상징 조형물이 석촌호수 동호 입구를 장식하며, 6개의 루미나리에 터널을 지나면 호수 중앙에 주얼리 브랜드와 협업해 설치된 18미터 높이의 아름다운 조명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촘촘한 빛으로 가득 채운 루미나리에 터널, 미디어아트, 레이저 조명으로 만든 70미터 길이의 반딧불 조명길 등 형형색색의 빛 이야기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2월 29일까지 이어진다.

강서구
어린이에게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개관한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기획전시 《물재생! 왜할까?》를 5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한 물을 재생해 사용하는 이유와 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전시로, 볼로냐라가치상을 수상한 김지형 작가와 협업해 그림책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에 등장하는 장면들로 공간을 꾸몄다. 어린이만 아니라 동반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은평구
은평구는 문화예술후원 클럽 '은평아트누리'를 운영한다. 주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회원 1천 명을 모집, 은평구 1인 1문화 누리기를 실현하고자 출발했다. 월 후원금과 후원금 사용 분야를 각각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
화약고와 창고를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봉화산 옹기테마공원에서 옹기공예와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시로 열린다. 5세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옹기공예 일일 체험은 매주 수·목·토요일, 한지공예 일일 체험은 매주 목·토요일마다 열린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지공예 정규반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옹기테마 역사체험 교실' 등도 준비돼 있으니 관심 있다면 중랑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해보자. 신청 접수는 매달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반포심산아트홀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 〈심산 영화관〉을 진행한다. 아카데미 수상작을 중심으로 상영작을 꾸리고, 5월과 6월, 12월에는 국내 영화를 함께 준비했다.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소속 어린이 박물관인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암사동의 신석기 시대 마을을 비롯해 명일동·가락동·역삼동의 청동기 시대 집터, 백제의 도읍이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삼국 시대 고분군 등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향토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올림픽공원 내 구 몽촌역사관 자리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만 입장을 허용하며, 관람료는 무료.

공연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2019년 초연한 이래 네 번째 무대로 돌아온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손상규·김신록·김지현·윤나무 네 배우와 함께한다. 작품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원작 소설을 에마뉘엘 노블레가 1인극 형태로 각색한 것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19세 청년 시몽의 심장이 51세 여성 클레르의 몸에 이식되는 24시간을 그려낸다. 배우 한 사람이 100여 분간 모든 인물과 시간을 무대로 불러낸다. 무대·영상·조명·음악의 정교한 연출을 감상할 수 있을 것.
3월 10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070.4190.1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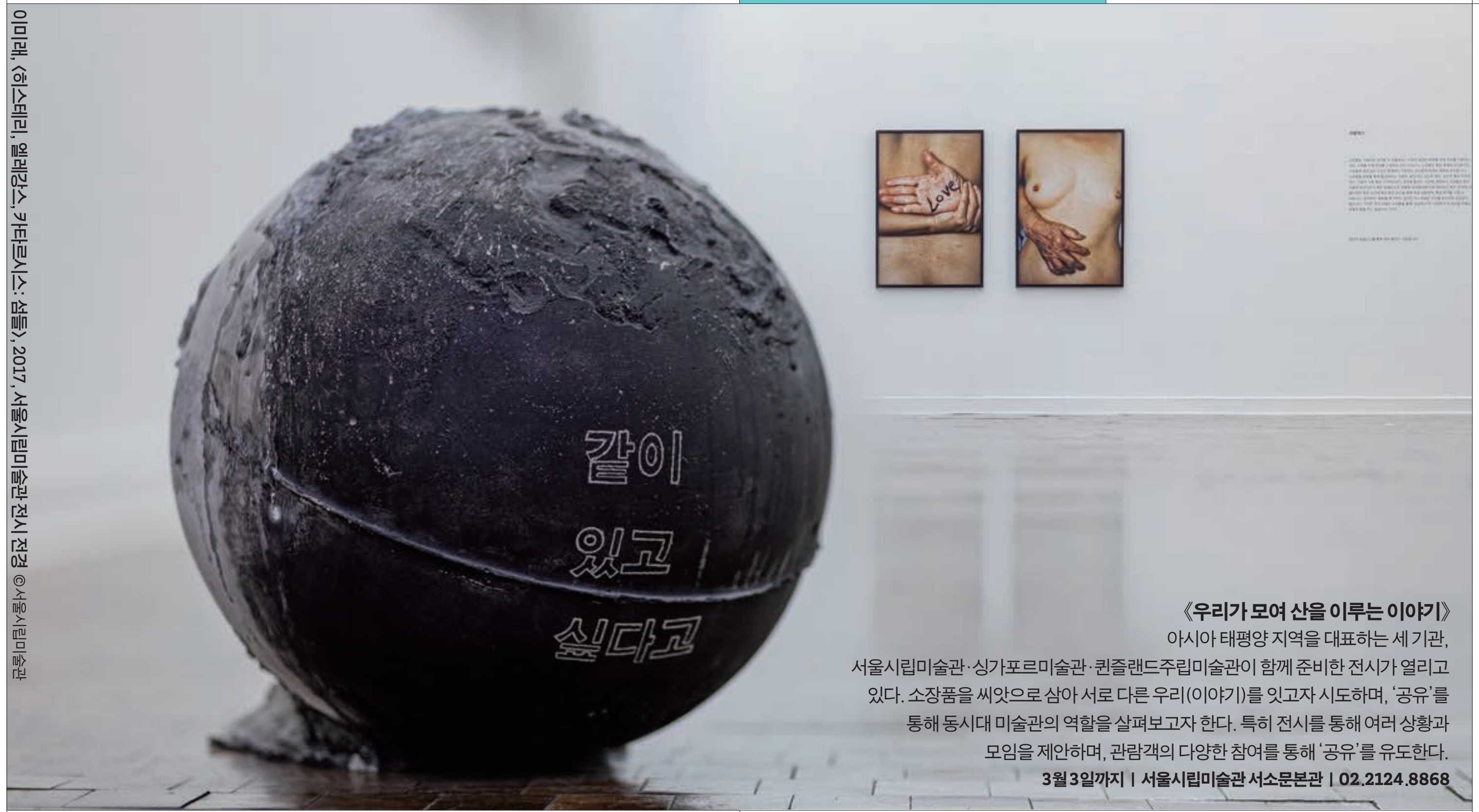
학전 어게인 콘서트
한국 대중문화를 키워낸 산실 학전의 33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학전 어게인 콘서트〉가 열린다. 2월 28일 윤도현과 YB 허준이 꾸리는 〈여행스케치〉를 시작으로, 3월 4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이 펼쳐진다. 그간 학전을 거쳐 간 예술가들이 함께 준비한 자리다. '김광석 다시 부르기', '김민기 트리뷰트', '유재하 동문회' 등 기획과 학전 레퍼토리 갈라 콘서트·토크로 이뤄진 '학전 배우 DAY'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을 추억한다.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 학전블루 소극장
02.763.8233

국립오페라단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가 27일 만에 완성한 젊음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 국립오페라단 올해 첫 정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결혼 생활에 싫증난 알제리 고관 무스타파가 자신의 아내를 노예와 짝지어주고, 한눈에 반한 이사벨라를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꾸미는 한 편의 코미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매력의 희극 오페라다. 활기찬 서곡으로 시작해 아름다운 아리아가 전편을 감도는 가운데, 명랑하고 경쾌한 리듬이 거침없이 펼쳐진다. 지휘자 이든, 연출가 최지형이 함께한다.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588.2514

가족뮤지컬 〈슈퍼클로젯〉
청소년기 딸과 자녀를 홀로 키우는 엄마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웅장한 뮤지컬 음악과 춤, 스크린아트와 무대 장치를 활용해 가족 모두에게 재미와 교육성을 모두 전하는 〈슈퍼클로젯〉이 돌아왔다. 〈두들팝〉, 〈폴리팝〉 등 작품으로 국내외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브러쉬씨어터는 전 세계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만들어가는 단체. 이번 작품에서는 작가 조민형, 작곡가 최슬기가 만나 옷장을 소재로 삼은 역동적인 무대 전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3월 17일까지 | 세종M씨어터 | 1600.8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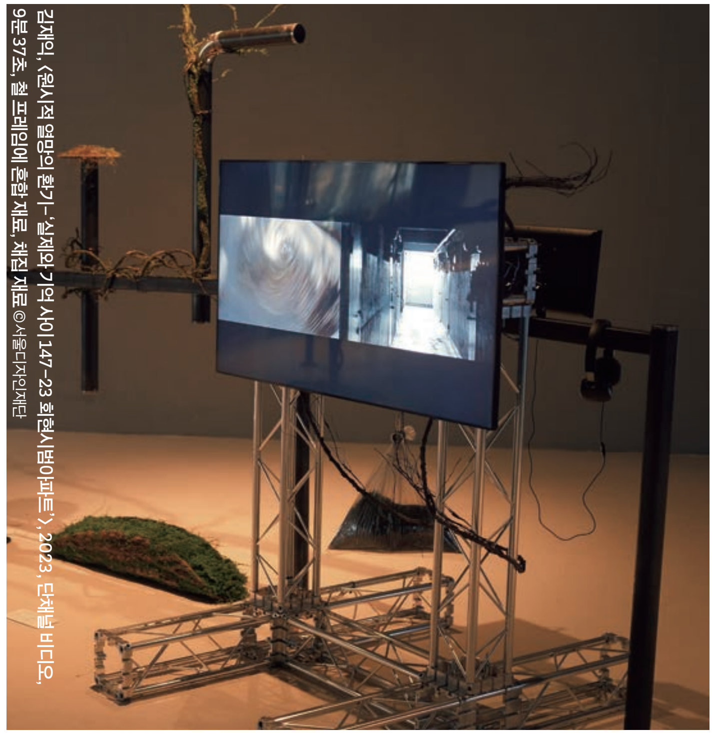
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 리사이틀
2005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후 세계 관객에게 자신을 각인시킨 라파우 블레하츠. 깊이 있고 기교적인 연주로 찬사를 받는 그가 2017년 첫 내한 이래 7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1부는 자신의 주특기인 쇼팽의 소품곡, 2부는 드뷔시와 모차르트, 그리고 폴란드 피아니스트로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시마노프스키의 음악을 준비했다. 2016년, 음악 연구를 위해 1년간 공연을 멈추고 철학 박사 학위를 마치는 등 콩쿠르 우승 후에도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자 정진해온 그의 음악이 궁금해진다.
2월 27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2.541.2512

전시



이미래,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 2017,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세 기관, 서울시립미술관·싱가포르미술관·퀸즐랜드주립미술관이 함께 준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소장품을 씨앗으로 삼아 서로 다른 우리(이야기)를 잇고자 시도하며, '공유'를 통해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시를 통해 여러 상황과 모임을 제안하며, 관람객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유'를 유도한다.
3월 3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02.2124.8868


김재익, 〈원시적 열망의 환기–'실제와 기억 사이 147–23 회현시범아파트'〉, 2023, 단채널 비디오, 9분 37초, 철 프레임에 혼합 재료, 채집 재료 ©서울디자인재단

《상실의 기록 – 소생하는 기억의 틈》
도시에서 경험한 감정과 다양한 시간의 기록을 펼쳐놓는 전시《상실의 기록–소생하는 기억의 틈》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오픈 큐레이팅으로 작가 김재익과 협업한 프로젝트다. 전시 공간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눠, 지하철 공간의 인간군상을 묘사한 '사소한 시간의 속성 철도교', 사회적 변화와 사건에 따라 바뀌는 기억을 오브제로 구체화한 '원시적 열망의 환기–소생하는 기억의 틈 사이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이면을 추적한 '상실의 기록, 오디오–비디오 연작'으로 구성했다. 도시 공간에서 채집한 물질과 소리로 완성한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
3월 31일까지 | DDP 갤러리문 | 02.2153.0065

《만년사물》
서울공예박물관과 고려아연이 함께하는 KZ 프로젝트 첫 번째 전시《만년사물》은 공예가 '지속 가능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지속 가능한 제작 방식을 지닌 공예는 적정한 규모와 뛰어난 마감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를 의미한다. 고려아연이 후원한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을 받은 역대 수상 작가 18명의 대표 작품을 통해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공예가의 실천을 엿볼 수 있다.
3월 10일까지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3층 기획전시실
02.6450.7000

2020년 수상자 박지은의 작품 ©서울공예박물관

《龍, 날아오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갑진년 용띠 해를 맞아 용에 깃들어 있는 상징과 민속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열두 띠 가운데 유일한 상상의 동물인 용은 상상 속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일이 많다. 특히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용에 얽힌 여러 문화적 상징과 의미가 궁금하다면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말자.
3월 3일까지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02.3704.3114

축제/행사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미술관은 일상을 환기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준비한 필름앤비디오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섯 편을 소개한다.
프레더릭 와이즈먼 감독이 런던 내셔널갤러리에 3개월간 체류하며 촬영한 〈내셔널갤러리〉, 란탈 감독이 국립이스라엘미술관에서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한 〈미술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증축 과정을 추적한 우커 호헌데이크 감독의 〈라익스미술관의 새 단장–더 필름〉, '포용성과 다양성' 정책을 스테델릭미술관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라 보스 감독의 〈화이트 볼스 온 월스〉, 시각장애인 미술애호가 시라토리 겐지가 미술관을 순례하며 겪는 일을 담은 가와우치 아리오 감독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가다〉 등 다섯 편이다. 영화를 통해 나누는 뜨거운 대화에 함께하고 싶다면 4월 6일까지 예정된 상영시간표를 확인한 다음, 미술관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2월 23일에는 서울관을 설계한 건축가 민현준과 학예연구사 정다영이 함께하는 토론 '작품과 관객의 공간–미술관 건축 감상'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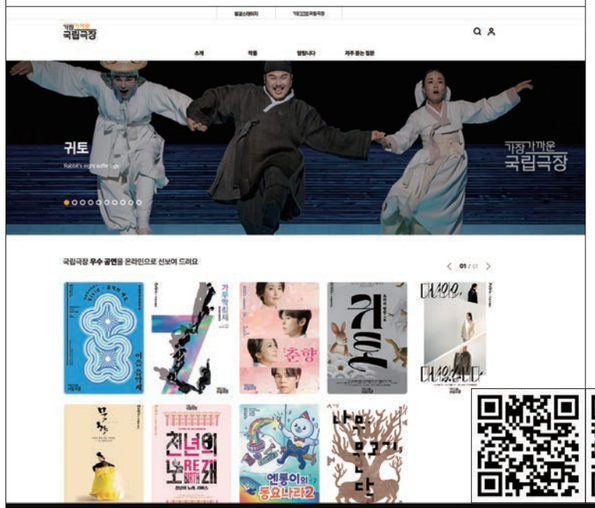
DDP 건축 투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 DDP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의 역사와 의미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살펴보는 건축 투어가 상시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하루 3회 열리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투어 데스크에서 출발해 실외 공간과 디자인랩, 뮤지엄을 두루 둘러보는 구성으로, 50분간 이뤄진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해설도 준비돼 있으며,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다.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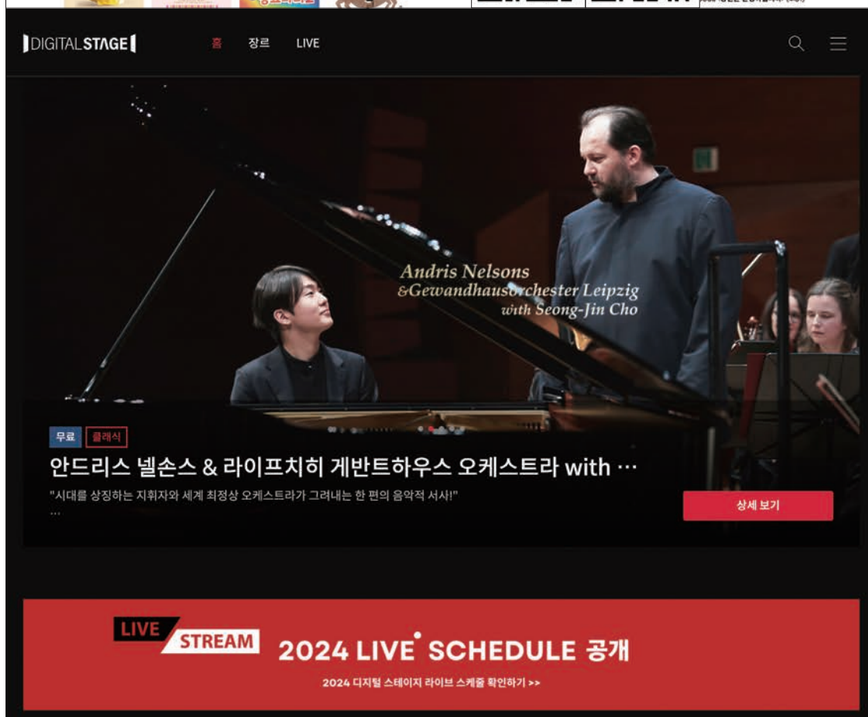
온라인 콘텐츠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우수한 레퍼토리와 기획공연을 고품질 실황 영상으로 제작, 유통해온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이 영화관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앞으로 국립극장 공연을 시공간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된 것.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된다. 현재 국립창극단 〈춘향〉, 〈귀토-토끼의 팔란〉, 〈나무, 물고기, 달〉, 국립무용단 〈묵향〉,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가무악칠채〉, 국립국악관현악단 〈천년의 노래, 리버스〉, 〈비비드, 음악의 채도〉, 〈어린이음악회-엔통이의 동요나라 II〉 등 9편을 볼 수 있다.



아르코댄스필름 A To Z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마련한 '아르코댄스필름 A To Z' 상영회는 팬데믹 시기 예술가에게 공연을 지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장으로, 또 관객에게는 극장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상영 후속작 다섯 편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상 작품은 콜렉티브A(안무가 차진엽) 〈원형하는 몸: round 1〉, 시나브로가슴에 〈Earthing〉, 쿰-코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foggy 하지마〉, 유민규 〈몸에 묶이다〉 등이다. 더불어 대학로예술극장 외부 전시 공간에서는 댄스필름과 협업한 오브제 형식의 전시 작품이 걸린 윈도 갤러리도 만날 수 있다.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예술의전당이 공연 OTT 서비스를 시작했다. 'SAC 온 스크린' 사업을 통해 공연 실황 영상을 제작해온 노하우를 살려 영상 배급을 시작한 것이다. 영화 수준의 고화질 공연 영상을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PC만 아니라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클래식·발레·연극·어린이/가족·국악·오페라·기타 등 7개 장르로 나눠 58편의 콘텐츠(2024년 1월 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1월 진행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협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실황 영상도 감상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향후 예술의전당은 자체 기획하는 〈토요콘서트〉, 〈교향악축제〉, 〈여름음악축제〉 등 공연의 실황 중계를 제공할 예정이며, 도이치 그라모폰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협업한 결과물도 공개한다.

Scene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03 공연
04 전시
05 축제/행사
06 온라인 콘텐츠

Focus

지원을 넘어 유통과 확산까지 선순환 예술지원체계
10 시작하며 보조재가 아닌, 수요를 창출하는 지원으로 시대 변화와 발맞추는 문화예술 지원체계
12 변화하며 모두를 감싸 안는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❶
18 나아가며 시상 제도, 예술지원 선순환을 이끌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❷
23 나아가며 좀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❸
24 다가가며 예술인을 보듬고 독려하는 장 서울예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경험기

Associated

30 예술가의 진심 노래하는 박혜상의 끝없는 여정
38 페이퍼로그 무한한 호기심, 따뜻한 관심이 되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오영호
40 인사이드 문턱은 낮추고 기회는 확대하는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변화
42 인사이드 혜택 더 커진 서울문화누리카드, 쉽고 친절한 이용 안내서
44 예술단체 아카이브 라움콘 오직 목소리(구 두왑사운즈)
46 트렌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제정
48 트렌드 안전한 창작 울타리,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50 해외는 지금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수익 창구일까

Column

54 삶의 책장을 넘기며 새해의 어느 맑은 아침에 믿을만한 영양제 안내서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56 동시대적 고전 읽기 자신 안에 묘지를 짓는 삶, 윤 포세의 예언적 통찰
58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기품과 관조의 자세
60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선, 넘을까 말까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넘어
유통과 확산까지,
선순환
예술지원체계

예술지원에서 예술(인)지원으로,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이 가닿는 범위가 점점 더 확장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년 앞서가는 공모를 준비하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더 많은 예술인이
예술지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 창작 지원만 아니라 시상 제도를 마련해
확산까지 보장하는 순환형 예술지원 구조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보조재가 아닌, 수요를 창출하는 지원으로

시대 변화와 발맞추는 문화예술 지원체계

우리 문화예술의 성장은 수요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예술지원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문예진흥기금 설치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근대화·도시화로 농어촌 공동체가 쇠퇴하며 전통문화는 단절 위기에 처했고, 도시에는 이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도시문화 형성이 어려워졌다. 반면,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서구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문화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현대적 문화 인프라는 부족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재정은 정부 재정의 한계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문예진흥기금은 부족한 정부의 문화예술 재정을 보충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초기의 문예진흥기금은 예술지원뿐 아니라 전통문화, 문화시설 조성,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지역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됐다. 정부의 문화 재정이 증가하면서 하드웨어와 고정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단체·행사·인력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기금은 예술 창작과 향유에 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술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과 개선이 이뤄져왔다.

척박한 문화예술 여건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50년 동안 우리 문화예술의 성장은 경제 성장 못지않게 눈부실 정도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문화 인프라, 인력 양성, 콘텐츠 투자, 예술 창작지원, 문화 수요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정책 모델, 지원의 목표와 체계를 정립하지 않고 추진된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환경의 변화로 끊임없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이 강화되고, 지역 문화재단이 증가하면서 지원체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정부 전체 재정의 1.06% 선이지만, 보조금 비율이 60% 이상으로 보조금 규모는 전체 부처 가운데 5위를 차지한다. 특히 소규모 지원사업이 많아 사업 건수는 가장 많다. 문화 재정 지원기관은 ❶문화체육관광부 ❷기금운용기관 ❸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❹지자체 ❺지역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지원사업 전달 체계는 ①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지역 공공기관(지역의 간접보조사업자)→최종 사업수행자 ②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지역공공기관(지역의 2차 간접 보조사업자)→최종 사업수행자 ③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최종 사업수행자 ④문화체육관광부(기금운용기관)→지방자치단체/최종 사업수행자 등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다.

다양한 지원체계는 수요자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수요자의 복융합화, 유통 체계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으로 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화예술 지원기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확대의 속성이 있어 기능과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각 지원기관 및 사업의 목표, 지원 지침이 서로 달라 지원사업의 최종 수행자는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상당 부분은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시장 실패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일부 보조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재원은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재정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필자는 아직도 문화예술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지원할 가치가 있지만, 모든 문화예술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이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무조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성과와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칸막이식 비효율적 지원구조와 전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민간 시장, 분권, 복융합,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분산된 지원기관과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기관별 기능을 미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도 광역은 우수한 예술 지원에, 기초는 지역의 특화와 주민 친화적인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적인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양성-창작 지원-발표-유통-교류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장 실패에 따른 부족한 재원의 보조에 초점을 둔 형식적 지원의 공정성이 아닌, 지원 효과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적 투자의 관점, 실질적 기회 공정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기관과 심의 책임자의 지원 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책임심의관(위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술 활동의 주기를 고려하면 단년 지원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년간 지원사업은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다.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중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가치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단기간의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지원 심의-결정 시기를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한 파급 효과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컬glocal 브랜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예술로 발전시켜 지원사업의 전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원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사후 지원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도 필요하다.

중앙 정부나 서울은 예외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결정률은 80% 수준인데, 지원 신청 금액 대비 결정 금액은 20% 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부족한 재원의 보충은 예술인 복지로 대체하고 예술 지원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예술의 가치와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첩경이다.

모두를 감싸 안는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❶

예술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부터 기존 예술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문화재단의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두 가지 주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생애주기/경력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해 예술인의 성장을 돕는다. 예술인은 자신의 경력과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선택해 창작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작 활동 및 기반 지원을 넘어 예술인 생활 지원까지' 그 영역이 더 입체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예술인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인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고,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청년부터 원로까지, 생애주기/경력 단계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을 기점으로, 연령과 경력으로 인한 예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신진A-유망B-중견C)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청년'과 '원로'를 추가, 5단계 지원체계로 개선했다. 이러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과 생애주기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고안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작품 발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진입,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원로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신설된 청년예술지원은 예술 전공자들이 첫 작품을 발표하고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 전공자라도 졸업한 뒤 예술인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작업 방식을 정립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청년예술지원은 창작지원금 최대 1천만 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상호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을 통해 예술 활동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원로예술지원'이 신설되기 전 원로예술인은 중견과 경쟁하게 돼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예술인이 전체 예술인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2022년 기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2024년부터는 원로예술지원 선정자의 정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내에 접수 창구를 운영했다. 200여 명 예술인이 현장에 방문해 접수했는데,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찾은 원로예술인에게서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2024년 서울문화재단 1차 예술지원 통합공모 결과는 지난 1월 발표됐다. 청년예술지원은 14 대 1의 경쟁률 가운데 40명 예술인(단체)이 선정됐고, 예술창작활동지원(신진–유망–중견 트랙)은 8 대 1의 경쟁률로 449건이 지원 결정됐다.(3월 결과를 발표할 문학 분야를 포함하면 510여 건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원로예술지원의 경쟁률은 5 대 1로, 85명 내외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첨언하자면, 청년예술지원 및 원로예술지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청년예술인과 원로예술인 역시 A 또는 C 트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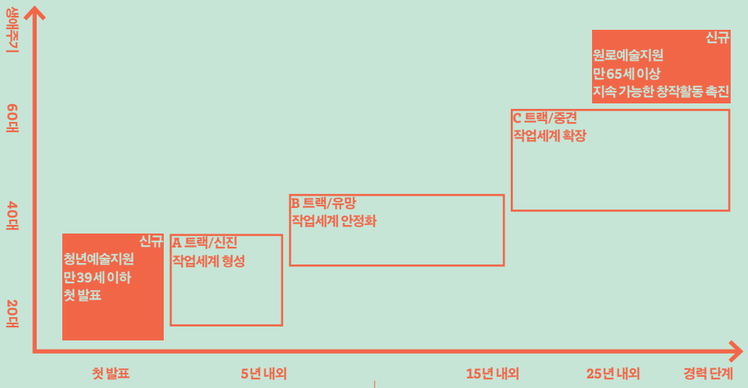
창작 활동은 물론, 예술인의 삶을 살피며

2020년부터는 '창작발표지원' 외에도 '창작과정 및 기반지원'이라는 지원 영역이 신설됐고, 2023년에는 서울예술상을 비롯한 '확산' 단계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했다. 이러한 지원 영역의 확장은 결과 발표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단의 지원 방향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신설된 '예술기반지원'은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체(실연자·비평가·연구자·공간 운영자 등)가 활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기반지원은 당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력을 보여줬다. 최근 재단이 진행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작발표 외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창작준비지원 RE:SEARCH'(45.1%)와 '창작예술공간지원'(26.6%)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2023년 '확산지원' 단계로 신설된 서울예술상은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다. 영화·드라마 등 대중예술 분야는 많은 시상식이 있어 우수한 예술인과 작품에 주목하고, 콘텐츠를 확산하는 기회가 많은 반면, 순수예술은 시상제도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 서울예술상은 순수예술 다 장르(6개 부문)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로, 예술인의 창작 동기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재단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에서 발표된 우수 작품과 장애예술인 부문까지 시상 영역을 넓힌다.

생애주기/경력단계별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 10월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개관, 예술지원 체계를 예술인 삶의 영역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유관기관과 대외 협력을 통해 지원 서비스의 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해오던 법률상담,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 외에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협력한 상해치료비 지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과 협력한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학업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서울예술인의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이다.

예술지원 영역별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예술지원

정보 제공

- AI 챗봇 맞춤 안내
- 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창작지원

- 청년예술지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 원로예술지원
- 상주단체육성지원
- 특성화예술지원

기반지원

- 입주공간 제공
- 공간 운영 지원
- 리서치 지원
- 작품기록 지원

향유/확산

- 서울예술상

'예술인의 삶을 지원하는' 예술인지원

생활지원

- 생활안정(긴급생활비 등)
- 건강검진/상해치료비
- 역량강화 등

보다 가깝고 더욱 편리하게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이 일 년 사업 계획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를 조기에 시행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통합공모 결과가 1월 발표됐다. 또한 개별로 공지했던 서울문화재단 내 다양한 예술지원사업을 시기별로 묶어 두 번의 통합공모로 운영함으로써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1차에 이어 2차 통합공모(예술기반지원·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특성화지원)가 1월 29일에 공고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도 재단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청년창업지원, 첨단기술과 융합된 예술지원, 긴 호흡이 가능한 다년간 지원 확대, 예술인 개인에 대한 생활지원 등 새로운 지원 영역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창작 활동에서 예술인의 삶까지'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운영과 365일 응답하는 지능형 챗봇 등 더욱 편리하고 예술인에게 가까워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현장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 40여 건 중 70%를 5년간 차례로 지원 제도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부담 폐지, 대표자 인건비 인정, 활동비 확대, 리서치 지원 및 작업실 지원 등이 있었고, 모두 현장에서 나온 해답이었기에 예술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4년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결과 발표와 동시에 2025년 공모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예술 현장의 관심과 수요에 밀접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다가올 미래에도 서울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밀한 파트너로 예술인 곁에 늘 함께하고자 한다.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2차 안내

예술기반지원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지원,
공연예술 영상기록지원

특성화지원

거리예술·서커스지원,
서울메세나지원, 유망예술지원,
융합예술 창제작지원(A 트랙/B 트랙),
장애인 창작활성화지원 등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사업별 신청 시기 상이

시상 제도, 예술지원 선순환을 이끌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❷

지난해 서울을 대표하는 순수예술 시상 제도로 첫발을 내디딘 서울예술상과 서울희곡상이 올해 더욱 탄탄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서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진 예술인을 발굴·성장시키고, 기성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예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예술계 활성화의 발판을 다졌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근간은 양질의 예술을 창출하는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곧 예술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함께 성장해온 예술인을 격려하고,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서울시민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시상 제도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 결과물을 예술계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며, 시상식을 통해 해당 작품을 공유한다. 서울예술상은 이 과정에서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즐거운 긴장감을 더하고, 나아가 예술인이 노력한 결과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 분야 최우수상은 코너스톤 〈맹〉, 우수상은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무용 분야 최우수상은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우수상은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음악 분야 최우수상은 음악오늘 〈율.동.선〉, 우수상은 TIMF앙상블 〈2022 사운드 온 디 엣지 III-업데이티드〉, 〈2022 사운드 온 디 엣지 IV-재창조〉, 전통 분야 최우수상은 허윤정 〈악가악무-절정絶靜〉, 우수상은 김용성 〈류流-심연의 아이〉, 시각 분야 최우수상은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돈선필《괴·수·인》이 각각 받았다. 대상의 영광은 〈악가악무-절정〉을 발표한 허윤정에게 돌아갔다. 시상에는 각 분야 원로예술인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진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제1회 서울예술상의 성공적인 개최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예술계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인지도나 기존 활동 경력보다 작품 자체에 집중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덕분에 다양한 층의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날 상을 받은 이들 대부분은 서울예술상 수상이 "예술인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됐다"고

← 대상 수상작 허윤정 〈악가악무-절정〉
→ 음악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음악오늘 〈율.동.선〉
↓ 연극 분야 우수상 수상작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 연극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코너스톤 〈맹〉
→ 무용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말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미 있는 예술 작업을 해온 예술인과 그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창작 활동을 격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더욱 풍성하게 꾸려질 두 번째 서울예술상

올해 제2회 서울예술상은 제도 시행 취지를 더욱 공고히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 다각화한다. 먼저, 기존의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 5개 분야에 '다원'을 새롭게 추가해 장르 범위를 넓혔다. 또한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당 전문가 2~3명을 매칭, 평균 2.7회 이상 철저한 평가를 진행했다.

장르뿐만 아니라 시상 범위도 확대한다. 예술성과 우수성이 돋보이는 신진예술인의 작품을 주목하는 프런티어상,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작 외에 2023년 서울에서 발표된 우수 작품을 시상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부문),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장애예술인을 시상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장애예술인 부문)이 추가로 제정됐다. 그해 발표된 우수한 작품을 폭넓게 조명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수상 기회를 부여,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 예술의 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예술계가 더 발전하고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시상 대상이 다각화된 만큼 운영 방식도 더욱 체계화한다. 후보작 326편에 대한 전수

현장평가를 맡아 진행한 6개 장르 현장평가위원 54명 외에 전문 기자단, 장애예술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지난 1월 발족하고, 예술계 원로인 배우 손숙을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현장평가위원이 6개월간 진행한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토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한다.

시상식은 수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인은 그간의 노력과 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다른 예술인에게 영감과 동력이 돼 예술 장르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수상자와 작품에 주목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시상 제도는 예술계가 입체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동력이 돼준다.

그런 의미에서 제2회 서울예술상이 모든 예술인의 즐거운 축제이자, 아름다운 도전과 뜨거운 노력이 기꺼이 응원받고 축하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양질의 결과물을 조명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재확산되며 끊임없이 예술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술 작품의 질적 성장이 다시 시민의 문화향유로 이어지고, 나아가 예술이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믿는다.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은 2월 2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다.

→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자 이실론
↓ 시각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이은우 〈직각 마음〉

대본이 장면이 되기까지, 탄탄하게 지원하는 서울희곡상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제1회 서울희곡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진 극작가 이실론의 작품 '베를리너'를 수상작으로 발표하고 상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희곡상은 새롭고 우수한 창작희곡을 발견해 연극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극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공모는 등단 여부와 관련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 희곡을 대상으로 하며, 첫 공모에 178편이 응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여타 희곡상이나 지원 제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이 서울희곡상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첫 번째 수상작 '베를리너'는 올해 대학로극장 쿼드 프로덕션을 거쳐 하반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 서울희곡상은 올해도 새롭고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 전통 분야 우수상 수상작 김용성 〈류-심연의 아이〉

좀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③

수천 건의 서류, 수백 건의 문의와 매칭,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예술지원사업 공모. 서울문화재단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예술인과 관계자 모두에게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예술지원 전문 상담 매니저

마감일이 정해진 공모 접수 특성상 마감 일주일 전에는 평균 100건에 달하던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접속량이 마감 4일 전에는 250건, 마감 당일에는 최대 800건까지 이르는 현상을 보이곤 했다. 매년 정기로 진행되는 예술지원사업이지만 연간 문의는 공모 기간이면 하루 최대 100통에 달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같은 현상으로 문의 사항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해 예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예술지원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로, 예술지원사업 전용 상담 챗봇 '서다니'를 적용한 것.

재단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AI 챗봇 '서다니'를 시범 도입해 상당한 활용도를 확인했다. 이 기간 전체 문의는 7,157건으로, 이 중 55%를 차지하는 9,953건이 새벽(0시부터 8시), 점심시간(11시부터 13시까지), 야간(19시부터 24시까지) 등 업무 외 시간에 이용된 것이다. '서다니'가 대신 처리한 업무량을 환산해보면 지원 담당자별 응대 시간이 일평균 56분가량 줄어든 수준. 예술인으로서는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한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재단은 앞으로 자연어 처리 답변(이용자의 문장형 질문을 파악해 처리하는 답변)에서 발생하는 일부 오류와 시스템 버그를 개선하고, 더 많은 정보를 학습시켜 신청 조건, 신청일, 결과 발표일 등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다.

정확도와 속도를 높인 자동화 시스템

특히 예술지원 심의체계에 있어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전문가 검토위원의 수를 전년 대비 30% 확대한 80명으로 늘려 통합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증 체계는 3단계로 고도화해 그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문서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능을 고도화한 AI OCR 기술을 도입, 문서와 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 다수의 단시간근로자가 지원신청서를 눈으로 검토하고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던 이전과 달리,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로써 9일 정도 걸리던 업무가 7일로 단축되고 정확도 또한 높아졌으며, 담당자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이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AI 등을 적극 활용해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거듭난 SCAS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작을 평가하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SCAS는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점차 고도화됐고, 최근 현장평가 매칭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정보 등록에서부터 평가 신청과 매칭, 실제 평가 진행까지 5단계에 걸친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해진 것. 이로써 담당자와 현장평가 위원이 유선으로 일일이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능한 프로젝트와 일정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칭이 이뤄진다. 평가를 마친 뒤에는 이메일로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직접 평가 메뉴에 결과를 입력해 점수가 환산되도록 했다. 향후 SCAS 안에서 평가를 위한 티켓 예매까지 연동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며, 피드백을 거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와 UX를 갖출 계획이다.

예술인을 보듬고 독려하는 장

서울예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경험기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건이나 불안과 고민으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작 활동만 아니라 예술인의 고민까지 보듬는 예술인 법률·심리상담에 관해 알아봤다.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 10월, 재단 대학로센터 내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예술가별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표방하는 이곳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다양한 정책이 생겨나고 있지만,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무엇보다 상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예술인이 각자 상황에 맞는 정보를 추천받는 데 용이하다. 온라인 정보 검색과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이라면 이곳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또한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생활기반 지원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무대용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비롯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예술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은 2021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은 창작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예술인 내면의 다양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지원한다. 두 가지 모두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심리상담의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마음수업'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도움은 절실하지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쉽지 않을 때,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언제나 예술인을 향해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법률·심리상담을 경험한 두 예술가와 법률상담 전문가에게 예술인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애리

예술인 법률상담 전문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❶ 법과 제도란 언제나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 법률상담은 창작 활동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술인 법률 상담 전문가로 서울문화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술인을 지원할 전문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지인에게 공모 소식을 전해 들었고, 지원해 선정됐는데요. 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소송대리 외에도 유료로 상담과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나 예술인에게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요. 저를 찾는 예술인들께 무료 상담 창구를 소개해드리고 그쪽으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만족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더라도 보통 소송 직전 단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서울문화재단만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❷ 국문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창작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예술인의 사례에 깊이 공감하실 듯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술계에서 법조계로 이동했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 시절 영상 문법에 매력을 느껴 영상 시나리오 작가나 프로듀서를 지망했어요.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학년이 돼 영상 제작 실습수업을 듣다 보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또 그렇게 여러 관계자와 협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로를 고민했는데, 제가 졸업반이 되던 시기에 국내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로스쿨 입학 과정을 알아보니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와 논증·논술이 중요하더라고요.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논술 강사로 일해본 경험도 있고, 특히 논술형 시험에 자신이 있었죠. 로스쿨에 들어와 공부해보니, 과연 언어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법학 공부의 전부는 아니지만 언어를 '도구'로 다룬다는 점에서 제가 원래 하던 공부와 법학의 접점을 발견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언어와 법학의 언어는 같은 언어이면서도 쓰임새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법학은 문과에서 유일하게 정답이 있는 학문이라고도 하니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학과 법학이지만, 저는 문학적 감수성을 접목해 고객과 실제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판사와 검사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기준을 가지고 정답을 추구해나가겠지만, 변호사는 그 사건에 휘말린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야 하니까요. 시간 순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배열하고, 추상적인 법에 구체적인 사건을 적용할 때는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 해 보는 거죠.

❸ 현재 서울문화재단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단체의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예술인과 기관이 각각 가장 많이 상담하는 법률적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예술인이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석이나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계약 상대방과 달라 사업자가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작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든가, 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작품을 마음대로 가공해 이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관심을 두는 이슈는 예술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을 돕다보면 사업의 세부 기준과 지침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며 시정명령 같은 행정 처분을 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개인이나 기업에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사 결정에 앞서 법률 자문을 거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 내부의 경영, 인사, 회계 등 조직 운영에도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❹ 법률상담은 대면, 온라인, 서면 등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자주 활용되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식을 고르게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려운 주제이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상담하는 일이다보니 대면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집니다. 저도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다면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면 상담은 자료를 직접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사안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상담받는 분과 비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신청서만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의 경우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이때 상담하는 변호사나 상담받는 예술인이 계약서 같은 기초자료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상담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를 대강 읽어보고 상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초가 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사전에 보내주시고, 꼭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미리 정리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팬데믹 이후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명이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상담받기를 원하거나 전자로 문서를 공유하면서 진행하고자 할 때 추천합니다. 제 경우 계약서 검토 상담의 경우 미리 받은 문서에 설명할 내용을 표시해 화면을 공유하며 온라인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또한 서면 방식은 대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 예컨대 서울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나 해외 거주 예술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지 않고 항목이 정해져 있을 때 유리하고요. 대면이나 온라인 상담을 하고 난 다음 상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에, 질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서 서면

상담을 신청하면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으시려면 상담받는 분이 어느 정도 사안을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❺ 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창작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조언해주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계약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거나 잘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분쟁의 불씨가 되며, 저 같은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을 사업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계약할 때도 사업자가 예술인을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대우하도록 협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계약하려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내가 억울하다거나 기분 나쁘다는 식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조건을 맞춰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예술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담하다 보면 대체로 '계약이나 법률문제는 어려우니 상대방을 믿고 계약하고, 나는 작업에 전념하자'고 생각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술인은 사업자가 경영 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예술인은 사업자와 계약하기 전부터 의존적인 관계에 놓이곤 합니다. 연예인과 전속기획사, 출판사와 작가, 최근에는 웹툰·웹소설 작가와 제작사, 1인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도 이런 관계죠. 물론 계약을 맺고 나면 매니지먼트사가 작가의 계약과 법률문제를 챙겨 도와주지만, 계약하기 전에는 철저히 남남이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할 때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❻ 지난해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 '예술가의 인생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협상하는 법'에 대한 강연하셨어요.

요즘 계약 협상을 도울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언택트untact 환경에서의 전송권 분쟁, AI, 해외 OTT 서비스와의 계약 문제, 미디어믹스media mix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해 있지만, 업계 관계자와 법률가들이 가장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이슈는 불공정환경 개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는데, 창작 노동을 하는 개인 프리랜서와 창작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의 협상력 차이가 커서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만화 〈검정 고무신〉 작가님 중 한 분이 사업자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의 충격이 컸어요. 그 사건 이전에는 저도 강의할 때 주로 신인이나 지망생 시절에나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받고 어느 정도 지명도와 인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쉽게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검정 고무신〉은 국민 만화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도 그런 비극이 발생했으니까요. 문화예술시장에 정부와 법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우선 지금 활동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지원사업 같은 정책이 더욱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❼ 공저서인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창작자들이 쉽게 말 못 할 고민을 상담해주는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집필했습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덕수 내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 꾸준히 공부도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다 보니 한국만화가협회의 법률 자문을 하게 되고, 만화의 날에도 초청받아 표현의 자유와 자율 규제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들의 상담 사례가 쌓였고, 이 귀중한 사례를 우리만 알지 말고 웹툰 작가를 위한 계약 지침서를 써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부족한 면이 많고 이후에 좋은 웹툰 계약 지침서가 많이 나왔지만, 많은 작가님 들이 꾸준히 사랑해주신 덕분에 개정증보판까지 나왔습니다.

❽ 상담을 고민하는 예술인에게 한마디 건넨다면.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을 병원 가는 일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몸에 생긴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병이 깊어지듯이, 법률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사를 만나 최종 진단을 받아야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나요?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상담받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하다고 하죠. 모든 사건이 다 똑같습니다.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조처하거나 손해를 줄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에서 예술인을 위한 법률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원하는 서비스와 전문가가 있는 곳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지금 바로요!

장한나

시각예술 작가
예술인 법률상담 진행

❶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나요?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작업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 들어가보곤 하는데요.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전부터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곧장 신청했습니다.

❷ 어떤 이유 혹은 필요에 의해 법률상담을 찾으셨나요?

저작권 관련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에 진행한 〈뉴 락 표본〉 시리즈 작업 세 개 중 두 개가 다른 작가의 드로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됐거든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놀랐고,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건너 건너 여러 지인을 통해 저작권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정작 시각예술에 관한 사례는 진행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서울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좀 더 시스템이 세분돼 있고, 시각예술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신청했습니다.

❸ 실제 법률상담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나요?

법률상담 안에도 여러 세부 분야가 있고, 그중 저작권 관련 사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택할 수 있어 대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곧 약속한 날짜에 담당 변호사님과 매칭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을 미리 온라인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셨고, 상담일에는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게 질문해주셨고요.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제 경우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쭉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상담이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어요.

❹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에게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은 작가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다른 작가님의 드로잉에 제 작업이 사용된 것을 봤을 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여러 내용을 살펴봐도 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죠. 시각예술 저작권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서울문화재단 법률상담을 통해 만난 변호사님은 관련 경험이 풍부하셨어요. 이 상담을 통해 제 사례가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절차와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알게 됐고요.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❺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예술인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의무로 문화예술계 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을 듣던 중 이 문구를 보고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 창작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나와 내 작업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이 분명했고, 이에 대해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법률상담을 받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❻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해 법률상담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인지원 프로그램에 바라는 바가 있나요.

당장 많은 수요가 없더라도 지금처럼 질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상담도 심리상담도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술인이 도움을 받고 힘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주희

문학작가
예술인 심리상담 진행

❶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나요?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선정돼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그중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문학 작가 정주희

❷ 어떤 이유 혹은 필요에 의해 심리상담을 찾게 되셨나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불안 때문에 작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❸ 실제 심리상담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나요?

심리상담을 신청한 뒤 서울문화재단 담당자께서 상담 전문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일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 심리상담 전문가의 약력과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 있어 내 상황에 맞는 상담 전문가를 매칭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상담이 이뤄질 장소의 위치도 고려했어요. 시설 주변에 사람들이 활발히 오가고, 이동하기에 효율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주 1회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날짜와 요일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담 전문가와 라포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발화되지 못한 채 나를 무겁게 만든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과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나를 힘들게 한 감정, 우울함이나 불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응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기 상담이 끝난 뒤 후속 조치로 주 1회 상담하던 분들과 월 1회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앞서 심리상담에 참여한 분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상담 과정에 이뤄진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였던 기억이 나요. 내 이야기를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발견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순간을 덤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울할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 가면 나의 우울함이 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처럼, 심리상담을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❹ 작가님이 참여한 집단상담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문화재단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마음수업'에서 나와 너를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맺기에 관한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주 1회씩 4주간 이뤄진 프로그램이었어요. 개인 상담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 목표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다룬다면, 집단상담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차이, 주장,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 자신이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참여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되기도 하고,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해결점을 발견하고 공감을 나누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효과도 있었어요. 관계 안에서의 적응을 다루는 문제기에 집단상담의 방법이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을 마칠 즈음 후속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집단상담을 경험할 수 있어 더 좋았고요. 집단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유형을 찾게 되는데요. 테이블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다보면 관계 속에서 느낀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고통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몇 없는 단점이라면 집단상담만으로 내면의 불안함을 다루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입니다.

❺ 심리상담은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그 안에서 불안을 느끼고 우울했던 나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게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로 하여금 나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작자는 작품이 완성되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감이 밀려오는데요. 앞으로는 그 고독감을 스스로 위무하면서 격려하고, 또 동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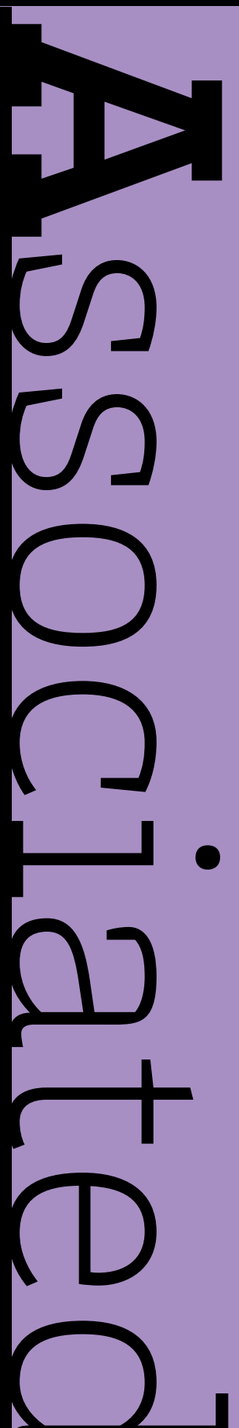
❻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예술인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자신 안에서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든 커 보일 겁니다. 문제를 밖으로 꺼내기 힘들지만, 막상 조금만 꺼내 바라보면 의외로 작은 문제라는 것을 뜻하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그 용기를 나눌 힘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❼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심리상담·법률상담 등 예술인지원 프로그램에 바라는 바가 있나요.

선순환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 창작 활동 가운데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술인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과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주시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문화재단 담당자와 상담 전문가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예술가의 진심
노래하는 박혜상의 끝없는 여정
페이퍼로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오영호
인사이드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혜택 더 커진 서울문화누리카드
예술단체 아카이브
라움콘
오직 목소리(구 두왑사운즈)
트렌드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제정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해외는 지금
프랑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노래하는 박혜상의 끝없는 여정

클래식 음악계에서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이 가진 의미는 매우 상징적이다. 흔히 DG, 속칭 '전설의 노란 딱지'(음반사 로고가 노란색이다)로도 불리는 이 음반사는, 전 세계 애호가에게 신뢰받고 있다.

그 때문에 DG 아티스트로 음반을 낸다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명성을 얻는다는 것과 동의어에 가깝다. DG 아티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 DG 회장 클레멘스 트라우트만Clemens Trautmann은 아티스트에게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백 년 전 작곡된 음악에 새로움을 부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함Unique'을 가진 아티스트를 찾는다는 것.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반은 이들이 찾는 '특별함'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듯하다. 2020년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이어 한국인으론 두 번째로 DG와 전속 계약을 맺은 박혜상은 그해에 1집 〈I AM HERA〉, 올해 2월에 2집 〈BREATHE(숨)〉를 발매했다. 이제 단 두 장뿐이지만, 박혜상은 마치 소프라노가 오페라 무대마다 다른 배역으로 변신하듯 음반마다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 특히 음악 작품을 엮어내는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 보였다.

일례로 1집에서 박혜상은 자신의 영어 이름인 '헤라Hera'를 전면에 내세우며, '나다운 것'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음반임에도 한국어로 된 가곡을 삽입하는가 하면, 음반 발매 인터뷰에선 '선택적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더욱 기대를 모았던 2집은 음반 표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중 촬영까지 감행한 박혜상은 팬데믹을 지나며 느낀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 혹은 해답을 엮어냈다. 세이킬로스의 비문 '결코 슬퍼하지 말라. 살아 있는 동안 빛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2집에 담긴 이야기에서부터 그와의 긴 대화가 시작된다.

음반 제목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숨'이란 호흡이 중요한 성악가에게 특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잖아요.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음반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꾼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꿈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에너지에 빛을 가득 선물 받았어요. 그 에너지에 이끌려 물가에 다다랐을 때, 깊은숨을 들이마시고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자, 흑백이던 그 꿈이 형형색색 무지개와 꽃이 펼쳐진 색의 향연으로 바뀌었어요. 저를 지켜본 사람들은 몇 날 며칠에 걸쳐 삶을 축하하는 파티를 벌였고요. 저는 물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정말 특별한 꿈이네요. 그래서 음반 표지에도 물속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담겼군요.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온전히 내게 주어진 영혼만을 느끼면 거대한 우주에 도구로써 존재하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마치 제 숨결만 남는 느낌이죠. 이건 비어 있음에 대한 우주의 포옹이자, 순수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 숨이 닿는 데까지, 우리는 오로지 빛나야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느낀 생각 또한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자, 오히려 우리를 진실에 다가가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단어에 깊이 매료됐어요. 특히 이 앨범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는, 삶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음악가에게 DG와의 음반 작업이란 최고의 업적 중 하나인데요. 이런 괴짜 같은 저를 믿고 기회를 주는 DG에 진심으로 감사하죠. 단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악을 녹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는 특히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았어요. 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거룩한 책임감도 느껴요.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앨범을 만들어갑니다.

오직 노래를 꿈꾼 시간

세계적인 음반사를 사로잡을 특별함이 박혜상에게 내재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운 그는, 정작 피아노 레슨보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10분

↑ 2024년 2월 발매한 박혜상의 두 번째 DG 앨범 〈BREATHE〉. 루크 하워드 'While you live'를 시작으로 베르디·레피체의 음악과 한국 작곡가 우효원의 곡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앨범 발매를 기념한 리사이틀은 2월 1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도 가르쳐준 노래에 빠져들었다. 노래를 배우는 그 잠깐의 시간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소녀. 그때부터 '노래'를 꿈꾼 박혜상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엔 도전했고, 타협하지 않는 성향이었다. 더 완벽한 음악을 향한 책임감은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렸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본다면, 나는 어떤 아이였나요. 성격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열정도 많고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얻으려 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때로 엄하셨고, 예의를 중시하셨지만 제 자유로움이 마음껏 구현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셨어요.

그러한 성향이 음악가로서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나요. 지금도 저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해요. 음악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 완벽주의 같은 성향도 나타나고요. 성악가로서 여전히 제 자신과 타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도 나의 최선이 최고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머리로 이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보다 유연하고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성악가가 되기를 꿈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제 꿈이 성악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성악가 박혜상'이라는 타이틀이 새겨졌죠. 제 꿈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언제부터 노래를 시작했나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 선생님이 레슨 이후 10분 정도 가르쳐주신 노래 시간을 무척 기다린 기억이 나요. 입학 후에는 교내에서 열린 동요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죠. 합창단에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어떤 친구보다 음악을 가깝게 두고 지냈어요. 단원들과 함께 만든 화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대 음대 졸업 후 줄리아드 음악원에 진학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악가로서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 여부는 그때도 지금도 관심 밖이에요. 다만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제 고통이나 좌절을 쉽게 꺾지 못한 것 같네요. 종종 도대체 노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어야 하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죠. 그때마다 결국 음악이 원동력이었어요. 음악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음악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걸 보며 결국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알았죠.

줄리아드 음악원 시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꿈꿨던 미국 유학 생활은 어땠나요.

↑ 2022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 수산나 역으로 열연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연극 연출가 마이클 그랜디지(Michael Grandage)가 연출을 맡았다. ©Bill Cooper

→ 2023년 10월 열린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서는 로지나 역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매료시켰다.

학생이라기보다는, 이미 전문 성악가로 조금 독특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루에 네다섯 명에게 레슨을 어떻게 받았나 싶어요. 저희끼리 농담으론 '줄리아드Julliard'를 '지옥 학교Jail-liard'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간 덕에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한 친구들, 진짜 음악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요.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됐을,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떠나오고 떠나갈 많은 노래들

박혜상의 음악을 설명하면서,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 없다. DG 아티스트이기 전에, 그는 '오페라 가수'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성악가가 오페라 가수는 아니다. 더 정확히는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거대한 오페라극장의 가장 멀리 있는 좌석까지, 오롯이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2023년 4월 1일 공연한 베르디 〈팔스타프〉의 한 장면. 박혜상은 난네타 역을 맡았다. 세련된 해석과 믿고 보는 연출로 잘 알려진 로버트 카슨(Robert Carsen)이 프로덕션을 맡았다. 현재 Met Live in HD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Karen Almond/Met Opera

← 2022년 줄리 테이머(Julie Taymor) 연출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다. ©Karen Almond/Met Opera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보낼 수 있는 발성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탈리아어·독일어·프랑스어 대본을 이해하고 발음을 통달해야 한다. 극을 끌어나갈 배우로서의 표현법, 연출에 대한 이해 등 극단 생활을 하는 연극 배우와 같은 시간도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오페라극장에서 젊은 성악가들이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도 한다. 흔히 '오퍼스튜디오Opernstudio'로 불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성악가들은 오페라 무대 곁에서 오페라에 대해 체득한다.

박혜상의 시작은 미국의 주요 오페라극장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Lindemann Young Artist Development Program에서다. 오페라 가수들과 함께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꿈꾸던 그의 마음은 오페라로까지 확장됐다. 조연에서 시작한 오페라 경험은 점차 주역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무대는 영국과 유럽으로 커졌다. DG와의 계약도, 영국 글라인드본에서 공연한 〈세비야의 이발사〉 이후 성사됐다.

〈세비야의 이발사〉 로지나 역이 여러모로 의미가 깊네요. 2023년 10월, 한강노들섬오페라에서도 이 역할로 무대에 올랐어요. 당시 공연에서 호흡을 맞춘 지휘자 김건과 2월에 있을 음반 발매 기념 공연에도 함께한다고요. 작년 10월 공연! 정말 추웠던 것이 기억나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콧물이 줄줄 나는 데도 노래했어요. 그중에서도 김건 선생님과 함께 만든 음악이 생각납니다. 무대에서 늘 눈을 마주치며, 제가 원하는 그림과 음악적 표현이 일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가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기다려준 분이세요. 제가 본 공연 때 예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던지. 공연 후 "깜짝 놀랐잖아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게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직하고 재치 있게 음악을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게 너무 중요한 이번 리사이틀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부터 영국과 미국 뉴욕까지 현존하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극장의 오페라 무대에 모두 올랐어요. 극장별 개성을 실감한 적도 있나요. 극장도, 관객의 반응도 아주 다르죠. 메트 오페라는 인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스태프부터 카페테리아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곳에 있는 게 낯설다는 느낌이 덜해요. 베를린이나 파리의 극장에선 한국인을 만날 때 그렇게 반가워요. 오페라에서 동양인은 제가 유일무이할 때가 대부분이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은, 멕시코 관객들인 것 같아요! 제 생일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리사이틀을 했는데, 관객 한 분이 "생일 축하해요!" 하곤,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 꺼리지 않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은, 제가 받아본 생일 선물 중 최고였답니다.

오페라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외에 종합적인 예술성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많은 역량이 필요하기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직업이죠. 끊임없는

← 새롭게 문을 연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에 테너 손지훈과 함께 올랐다.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한국 가곡까지 다양한 성악의 매력을 들려준 공연 〈The Voice〉 ©부천문화재단

여행, 캐릭터마다 맞는 목소리와 발성,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호흡…. 극장마다 제각기 다른 음향 상태에서,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 예민하게 내 몸을 들여다봐야 하죠. 그 안에 음악도, 감정도, 사무적인 일과 관계도 있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를 동료들을 뒤로한 채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해야 해요. 그렇지만 결국 무대에 오르는 순간에는 그간 준비하며 겪은 자아를 전부 내려놓고 온전히 빈 몸이 돼 그 자리에 임합니다. 내 몸을 통해 캐릭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캐릭터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잘 준비할수록, 무대 위에서는 빈 몸뚱아리만 남아요.

앞으로 어떤 곳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나요? 가장 기대는 것이 있다면요.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프 두다멜의 초대로, LA와 뉴욕에서 공연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기대되고 긴장되는 이벤트인 것 같네요. 오페라 공연으로는 프랑스·독일·영국·미국·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예정이고, 영국과 남미, 한국에서 있을 투어 리사이틀도 계획대로 잘 이뤄지면 좋겠어요. 이 공연들로, 다음 시즌에 좀 더 성장하는 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수는 부르는 노랫말대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속설 같은 것이 있지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구절이 있을까요? 그런 속설이 있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부분 오페라 여주인공이 이야기 뒤에 죽음을 면치 못해서… 작품 속 가사대로 결정된다는 건 믿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마리아 리타Maria Rita의 'Encontros e Despedidas'의 가사를 꼽고 싶어요. '도착하는 기차와 출발하는 기차는 같다.' 안녕Hello도, 안녕Good Bye인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기차역처럼 그대로 서 있는데, 인생은 늘 나를 향해 오기도 하고 나를 두고 가기도 하죠. 무언가를 가지고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요. 무언가를 쥐기 위해 에너지를 쓰기보다,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오영호

무한한 호기심, 따뜻한 관심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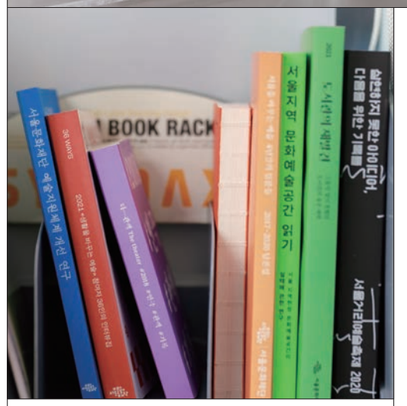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오영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는 편인데, 오래전에는 음악을 좋아해서 악기를 배우기도 했고, 게임 기획도 도전해보고 자전거와 수영도 좀 하다가, 요즘에는 와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 역시 막연히 문화예술의 환상에 끌려 서울문화재단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입사한 지 10년을 훌쩍 넘어 뒤돌아보니 처음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문래예술공장·연희문학창작촌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창작워크숍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요. 그중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어떤 존재인가요. '미지의 세계'라고 할까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고요. 시혜나 배려에서 출발하는 마음을 버리고 파트너로 함께 협업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기는 여전히 무척 어렵습니다.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렇기에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일은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믿어요. 어렵지만 그만큼 특별하기도 하지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는 과정에 함께하셨지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이제 갓 1년을 넘긴 터라 우선은 센터와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을 향한 관심이 장애예술 자체에서 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순간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분들과 언제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장애예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그 방향을 잘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올해는 센터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지 2년 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돌아보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는 없는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장기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창작워크숍, 입주작가 지원사업,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등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더불어 발달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창작워크숍은 여러 공간의 입주예술가가 함께하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공동창작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에 입주한 각 장르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입주예술가와 더불어 촉진자(외부 예술가)·기획자·매개자가 함께 2년간 공동 창작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예요. 2023년에는 약 6개월간 각각 예술가 팀이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내고 포럼을 거쳐 발전시켰고요. 이를 바탕으로 창작을 이어나가 올해 5월에는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단의 사업 특성상 기획자와 창작자의 재량에 맡기는 일이 많지 않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참여자도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과정 자체에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마구 등장하고 있어요. 오는 봄에 펼쳐질 전시가 저 역시 무척 기대됩니다.

2017년에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웹진 [비유] 창간을 맡았어요. 벌써 65호까지 발행된 데다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이 이뤄지기도 했지요. 바로 앞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승주 매니저님이 지금 연희문학창작촌에 계셔서인지 소회가 더욱 특별한데요. 마침 [비유]가 개편을 거쳐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뀐지라 저 역시 무척 새롭습니다. 2017년 당시 [비유]에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하면서 기획자들과 이런 문장을 썼어요. "'문학'이라는 이름을 '완성된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작품이 시작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생겨나는 문학잡지." 저는 이 문장이 다른 문학잡지와 다른, [비유]만의 정체성을 멋지게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방향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제가 담당하는 공동창작워크숍의 기록이 [비유]에 연재되고 있어서인지 제 몸은 연희문학창작촌을 떠났지만 여전히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요즘 하는 고민이 있나요. 힘든 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든, 조직 내에 해당하는 것이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가 해준 말이 떠올라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해보자.'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다급하게 피할 방법을 궁리하지,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고민하지 않겠죠. 원인을 찾는 일은 조금 미뤄두고 일단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 어쩌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냐는 것이 요지인데요. 걱정이 너무 많아질 때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씩 곱씹곤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공간'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책을 읽고 있으면 역사적 사건과 내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에 들어서면 역사가 축적된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 흥미로울 때가 많아요. 시내 곳곳에 있는 맨홀 뚜껑, 오래된 가옥과 건물, 또 최신 건축물까지.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쌓인 시간 속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돼요. 이런 모습과 시간이 모여 우리를 만들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형성하는 거겠죠? 그러다보면 종종 서울문화재단 안에서도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특정한 무언가에서 영감을 얻기보다 어디서든 정보를 모아두었다가 비빔밥을 만드는 편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 하지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탓에 어떤 때는 깊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곳으로 향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 드넓은 관심사는 어디서 잘난 척할 때도 꽤 쓸모가 많은 편이랍니다?(웃음)

문턱은 낮추고 기회는 확대하는,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변화

2024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공모 접수가 2월 5일 시작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교육예술가(단체)와 시민 참여자, 두 대상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고, 신청 자격을 단체 및 개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 서울시 제2차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설계했다. 이전까지 운영되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을 통폐합해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우산을 씌워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 세 개 유형으로 설계했다.

생애주기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으로, 자율기획형은 예술가(단체)가 예술교육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예술가(단체)를 중심에 두고 설계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형과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과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1월 29일 공고를 시작한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예술가(단체)'와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자', 두 주체를 모두 고려해 교육예술가(단체)의 활동을 확장하고, 지원사업의 목적을 강화하며, 운영 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했다.

지난해와 견줘 달라진 점으로는 첫째,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재단 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변화로, 팀 단위의 프로젝트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예술교육 현장을 반영한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자율기획형'에 한정적으로 신청 자격을 확장했다면, 올해는 '생애주기형'까지 신청 자격을 개인으로 넓혀 교육예술가(단체)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에 용이한 구조로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 '생애주기형' 유형 안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걷어내 참여자 연령이라는 숫자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예술가(단체)가 고유한 작업으로 만나고자 하는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게 했다.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기획·운영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교육예술가(단체)가 자기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 양식을 바꿨다. 지난해 '생애주기형'은 'A(유아)', 'B(아동·청소년)', 'C(시민)' 3개 유형으로 구분됐다면, 올해는 '유아(만 3~5세)', 그리고 '일반(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세대 통합 등 구체적으로 기획·제안)' 2개 유형으로 통합해 참여자의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굴·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셋째, '생애주기형(유아)'의 참여자 모집 방식의 다변화를 꾀해 유아 문화예술교육으로 진입하는 교육예술가(단체)가 느끼는 장벽을 완화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교육예술가(단체)가 직접 유아기관을 모집하는 '유아기관 모집형'뿐이었다면, 개별 참여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 일반 모집형'을 추가해 지원 신청자(단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관을 모집하는 데 부담을 느낀 교육예술가(단체)가 '생애주기형(유아)'으로의 진입을 시도해보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외에도 선정자와 단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 강화 등 과정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자(단체)의 경력을 고려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가 하면, 선정자(단체) 간 상호 교류 워크숍과 네트워킹 운영을 좀 더 밀접하게 운영한다. 더불어 예술교육에서의 실험과 시도를 촉진하는 '자율기획형' 선정자(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결과공유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예술가(단체)가 고유의 작업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과정, 시민이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경험, 지역이 교육예술가(단체)의 활동과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술교육으로 활성화하는 모든 순간을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주체를 위해 현장을 반영한 예술교육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24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공모

생애주기형(유아)
목적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예술(교육) 단체, 문화시설
지원 건수/규모 6건 내외, 각각 최대 2,500만 원 내외
운영 대상 유아(만 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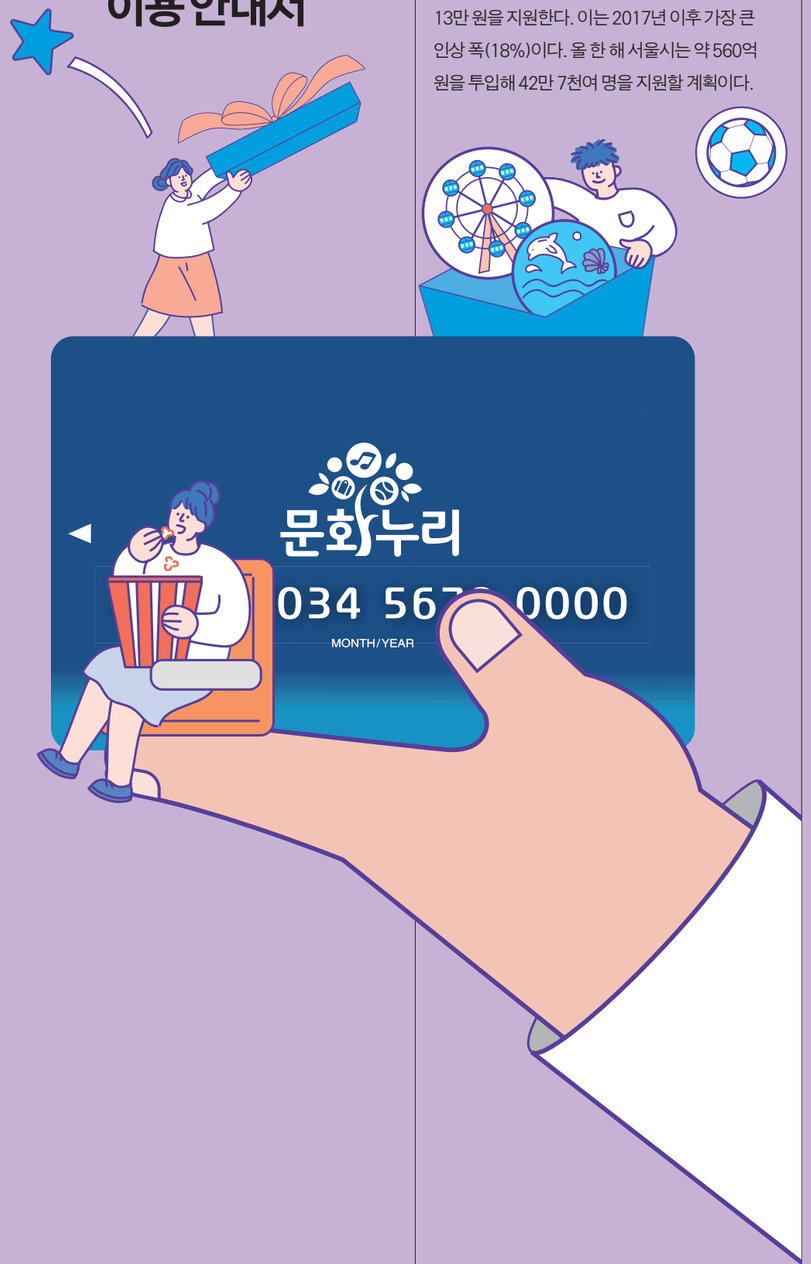
생애주기형(일반)
목적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예술(교육) 단체
지원 건수/규모 26건 내외, 각각 최대 2,500만 원 내외
운영 대상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세대 통합 등 기획·제안

자율기획형
목적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에 새롭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참신하고 도전적인 예술교육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예술(교육) 단체
지원 건수/규모 10건 내외, 각각 최대 2,500만 원 내외
운영 대상 자유 제안

지역협력형
목적 자치구 대상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 강화 및 질적 제고, 다양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
지원 대상 자치구 문화재단
지원 건수/규모 7건 내외, 각각 최대 2,700만 원 내외
운영 대상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문화시설
지원 건수/규모 6건 내외, 각각 최대 3,200만 원 내외
운영 대상 지역 주민 누구나

혜택 더 커진 서울문화누리카드, 쉽고 친절한 이용안내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다. 2017년 보조금 6만 원에서 매년 1만 원씩 지원 금액을 늘려왔고, 특히 올해는 2023년보다 2만 원이 증액돼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18%)이다. 올 한 해 서울시는 약 560억 원을 투입해 42만 7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문화누리카드 만들기

오는 2월 1일, 서울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올해 기준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카드는 인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단,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자체(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용자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카드 지원금을 1회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카드 발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라면 1월 말, 사용하던 카드에 지원금 13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자. 농협 고객지원센터(1644-4000)를 통해 분실 신고하고, 인근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2단계

문화누리카드 쓰기

어디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서울에서 발급했더라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곳곳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3~2024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서'를 제작했다. 노약자·장애인 등 정보 약자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으며,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성 안내도 들을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가맹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안내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서울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ssculure)에서 서울시 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안내서 파일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도 있다.

혜택은?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주요 국공립 공연장에서 연극·뮤지컬 등 각종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찾아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티켓 예매 서비스인 '클립서비스'와 협력해 인기 있는 공연을 할인가로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초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공연뿐만 아니다. 리움미술관에서는 서울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리움 아트숍에서는 서울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오직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말 것.

언제까지? 문화누리카드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잔액과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지원금 13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카드 앞면에 적힌 가상계좌에 충전금을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농협카드 누리집 또는 NH페이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3단계

서울문화누리 구독하기

서울문화누리는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이벤트, 신규 가맹점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서울문화누리'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으로 상담 문의하면 24시간 언제나 편리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당신의 메일함에 서울문화누리의 편지가 닿길 바란다.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제10회 문화누리카드 공모전 수기 중)

공연을 보고, 여행을 떠나고, 운동을 하려다가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망설이고 있다면, 문화누리카드가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2024년의 2월, 13만 원으로 나만의 문화생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발급 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마감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발급 방법

2023년 카드 이용자가 수급 자격이 유지될 경우 1월 중 2024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❶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❷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신청(mnuri.kr)
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신청
❹ 전화 ARS 1544-3412 (카드 소지자 재충전만 가능)

이용 가맹점

❶ 문화예술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❷ 국내여행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관련
❸ 체육 활동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 팁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라면 국립극장 공연 50% 할인 및 리움미술관 무료입장
- 나눔티켓(nanumticket.or.kr/1544-3405) 통해 공연·전시 월 3회 무료 및 할인 예매
- 악기·공예품·체육용품 등 일부 품목은 전화 결제 가능
-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문화원 등 우리 동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서도 사용 가능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절 사용 불가! 단, 영화관·놀이공원·축제 가맹점에서는 예외적 허용
- 국가지원금 모두 사용 시, 본인충전기능을 활용해 계속 할인 혜택 가능
- 사용 내역이 없으면 차년도 카드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문화누리카드 일반 문의 1544-3412
- 가맹점 및 나눔티켓 문의 1544-3405

온라인 채널 안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mnuri.kr
블로그 blog.naver.com/ssculture
인스타그램 @seoul_mnuri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문화누리
뉴스레터 seoul-mnuri.stibee.com

라움콘

SINCE
2019년

ABOUT
2018년 10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장애를 갖게 된 기획자 Q레이터와 시각예술 작가 송지은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듀오. 마비된 신체 기능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예전과 다른 몸으로 경험하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고 있다. '라움콘'이라는 단체 이름은 Q레이터가 감각성 실어증을 겪는 상태에서 착어錯語이자 비언어로 사용한 말에서 따왔다.

MAJOR WORK
〈한 손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포크〉, 〈한 손 그릇〉, 〈한 손 장갑〉

MEMBER
Q레이터, 송지은

IN 20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Future Wide Open: 신기술 기반 장애예술 창작실험실'에 선정돼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모두예술극장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더불어 4월부터 6월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 라움콘, 〈한 손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포크〉, 2023, 은

오직 목소리(구 두왑사운즈)

SINCE
2014년

ABOUT
음악적 스펙트럼과 다이내믹한 표현을 자랑하는 MZ 아카펠라 팀. 화려한 비트박스와 탄탄한 베이스로 구축한 리듬 위에서 개성 넘치는 트리오로 자유롭게 노래하기를 추구한다. 기존 국내 아카펠라에서 쓰이지 않는 팝 사운드를 가미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MAJOR WORK
앨범 〈나도 그래〉, 〈소녀야 넌,〉, 〈사진〉,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MEMBER
호민, 경진, 이랑, 종현, 현진

IN 2024
2023년 서울스테이지11 무대에 올라 다양한 시민과 만났으며, 올해는 4월과 12월에 청음회,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ENA 〈나도 구독왕〉을 비롯한 국내외 방송 채널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제정

ESG 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예술 창작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고, 다양성이 존재하며 차별 없는 사회 구조에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2023년의 끝자락,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 민간 및 공공 부문 29개 문화예술기관이 협력해 ESG 이니셔티브를 제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하다. 이들 기관은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모여 안건을 논의했다.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은 전국 문화예술기관 종사자가 참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ESG 경영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전문가 강의, 경영 실천과제 발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류하고 있다.

ESG 이니셔티브 제정을 위해 워킹그룹은 가장 먼저 ESG 관련 국제 표준과 문화예술기관 사업 등을 조사하고 대내외 환경 분석을 위한 38개 과제 풀을 구성했다. 이어 4회에 걸쳐 참여자 간 과제를 선정해 워크숍을 추진하고, 이후 워킹그룹에 참여한 29개 기관의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과제 선정 투표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을 도출했다. 3단계에 걸친 과정 이후 참여자들이 직접 이행문구를 정리해 지금의 선언문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정된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는 크게 환경E·사회S·거버넌스G 부문으로 나뉜 자율 규칙 11개로 구성된다. 환경 부문에는 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부문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관의 의무로서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공정한 기관 운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등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제정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ESG 인식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더욱 중요한 과제는 각 기관의 손에 달려 있다. 워킹그룹에 함께한 서울문화재단은 2024년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가고자 한다.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실천과제 ⓫

❶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❷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❸ 모두가 가치 있고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하게 하겠습니다
❹ 모두가 함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❺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❻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❼ 모두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행하겠습니다
❽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❾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으로 신뢰받는 문화예술기관이 되겠습니다
❿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력 체계 구축으로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⓫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INTERVIEW

박현주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에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한 계기

서울문화재단은 2022년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ESG 경영 참여 확대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꾸준히 ESG 경영 성과 측정과 실천 방법을 고민해왔고, 그러던 차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계의 ESG 실천은 사기업이 진행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문화예술기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기관 차원을 넘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에서는 ESG 체계나 성과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워킹그룹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전국 문화예술기관과 함께한 반년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근 5개월간 한 달 간격으로 만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매 워크숍은 반나절 정도 열렸는데, 한 시간은 강의를 듣고 또 한 시간은 다른 기관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관별로 조를 꾸려 ESG 어젠다를 두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던 것이 꽤 의미있었습니다. 광역·기초·민간 등 기관 특성에 맞게 조를 구성한 덕분에 각 기관에서 주요하게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나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요.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의 의미

가장 먼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이나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K-ESG 등 국제 표준을 검토하고,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맞게 의제를 추리는 과정을 몇 달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기관에서 피드백을 수렴한 뒤 수십 개의 지표 중 좁히고 재조합해서 11개의 규칙을 완성했습니다. 여러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제정한 이니셔티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기관의 인상 깊은 사례

삼성문화재단은 기업 문화재단이고 미술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결이 좀 다르지만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참고할 점이 많았고, 경기문화재단도 ESG 체계를 일찌감치 수립한 경우였습니다. 단순히 명문화된 ESG 전략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ESG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부서 성과 평가에도 연동하는 등 톱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이 훌륭하게 선순환하는 경우였어요.

서울문화재단의 ESG 경영

재단은 2022년 4대 경영목표의 하나로 'ESG 참여 확대'를 설정하고 8개 세부 지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꾸준히 ESG 경영 활동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사적 차원의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세부 지표와 측정 지표를 마련하고 핵심 추진 과제를 발굴해 대내외적으로 ESG 실천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시스템이나 체계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실천하고 확산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ESG다 보니, 직원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계뿐 아니라 민간 기업 등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활동 역시 재단 차원의 실천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여러 파트너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ESG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답게, 또 선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문화예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창작 울타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그 공간적 기반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2023년의 끝자락인 12월 19일,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열었다. 수년 전 터져 나온 예술계 미투 등 사회 문제를 계기로 입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눈감고 지나갔던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권리 침해 행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상담과 신고부터 피해 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통합으로 진행된다.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창구인 예술인신문고(sinmungo.kawf.kr)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상담받거나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예술인은 유선(02-3668-0566)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다. 이후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 분쟁 조정, 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예술인은 이곳을 통해 소송 지원을 비롯한 민·형사적 법률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내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서면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예술 현장에 공정한 계약 체결 문화가 자리잡고, 예술인이 스스로 예술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분야·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면 계약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이렇듯 다양한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공간도 일부 지원한다.

특히 예술인권리보장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사와 같은 공간에 구성돼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체결 과정을 경험하거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 또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으로 고민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의 문을 두드려 고민을 함께 나눠주길 바란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안전하고도 실질적인 창작 울타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린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까지의 변화

법 제정의 의의

-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대상 확대
- '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 기술지원 등 활동을 포괄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 선언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짐
-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공무원, 예술 지원기관 또는 예술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 행위 금지
- 예술 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
- 예술 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공정한 심사 방해 금지, 심사 관련 문서 조작 금지, 심사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변경 금지 등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 지원기관 및 예술 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의 도입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기관 마련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구제 기구 및 구제 절차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 권리 침해 행위 발생에 따른 구제 및 시정 조치, 분쟁 조정,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수익 창구일까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다. 신설 세금은 플랫폼 수입의 1.2% 수준으로 매겨지며, 국립음악센터Centre National de la Musique, CNM 운영과 음악계의 다양성을 키우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세금 도입은 2023년 4월부터 프랑스 음악산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격렬히 논의돼왔다. 12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세금 부과를 공표하며 결론 났지만, 스포티파이Spotify·디저Deezer 등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프랑스 음악축제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세금 신설이 단지 눈앞의 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인지, 건강한 음악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지 묻는다.

부족한 세수는 음악산업에서?

논의의 중심에는 CNM이 있다. CNM은 2020년 1월 프랑스의 음악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음악 창작과 혁신을 돕고, 수출을 관리하며, 친환경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음악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CNM의 설립 초기 예산은 연 5,000만 유로(한화 약 722억 원). 정부는 음악업계가 할 수 있는 한 CNM의 운영 자금을 자급자족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신설한 것이 라이브 공연 티켓에 대한 세금이다. 라이브 공연의 주최사는 공연 티켓당 판매 금액의 3.5%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당연히 업계는 반발했다. 이미 티켓 가격에 20%의 부가가치세가 붙은 상황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연계는 티켓당 3.5% 세율을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는 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천만 유로(한화 약 433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긴급 지원 등을 시행한 여파로 필요 예산이 2배가량 늘어났다.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앞둔 정부는 고민이 깊어졌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은 주요 공연 장소이기도 해,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티켓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파리시 상원의원 쥘리앵 바르제통Julien Bargeton은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및 무료 음원 스트리밍의 수익에 대해 1.2~1.75%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스트리밍 부문은 음악계 전체 수익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며, "연간 2천만 유로(한화 약 290억 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음원 수익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라이브 공연에 비해 낮은 수익 구조임에도 라이브 업계보다 1억 7천만 유로(한화 약 2,437억 원) 더 많은 세수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안건은 정부·라이브 공연계 대 음반사·스트리밍 업계로 대립하며 표류했다.

↑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다양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어 협업하고 있다. ©Spotify

↗ 스포티파이는 2023년 여름 세종문화회관 Sync Next 23과 협업해 공연장 로비에 청음 포토존을 조성했다. 사진 독자 제공

← 2024년 프랑스 국립음악센터의 예산은 1억 4,690만 유로(한화 약 2,119억 원)다. 이 중 단기 보조금은 제외한 안정적인 수입 항목은 8,030만 유로(한화 약 1,158억 원)이며, 주 수입원은 티켓세, 문화부 보조금, 저작권협회를 비롯한 파트너 기부금, 그리고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음원 스트리밍 세금 1,500만 유로(한화 약 217억 원) 등이다. ©Camille Gharbi

10월, 스포티파이·디저·애플 뮤직·유튜브·틱톡과 음반사가 연합해 대안을 제시했다. 세금 대신 CNM에 매년 1,400만 유로(한화 약 202억 원)를 기부하겠다는 것. 이들의 제안은 업계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큰 이득이 없었다. 세금 신설 건은 11월 상원 투표를 통과해, 12월 13일 마크롱 대통령 발표를 통해 수익의 1.2%를 걷는 것으로 공표됐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

스포티파이와 디저의 입장은 이렇다. 첫째, 유럽의 음원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과 미국의 거대 기업(구글·애플·아마존 등)이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율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 스포티파이는 스웨덴, 디저는 프랑스의 음원 플랫폼이다. 거대 기업은 세금이 올라도 그 지출을 여러 채널로 메우며 감당할 수 있지만, 음원 플랫폼은 그 영향이 구독료 인상과 직결된다.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면, 프랑스의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몇몇 거대 기업만 남은 단순한 구조가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에 부과되는 기형적인 세금 구조. 근본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저작권자와 수익 배분이 3 대 7 정도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진율이 낮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수익의 2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디지털 서비스 세금으로 3%, 영상 제공 서비스 세금으로 5%를 납부한다. 여기에 스트리밍 세금까지 추가한다면? 기업은 프랑스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줄여나갈 것이 자명하다. 혁신과 다양성을 위해 걷는 세금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과세 불평등. 음악·음원 관련 소매업체, 녹음 스튜디오, 라디오 서비스 및 음반사는 스트리밍에 따른 세금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이 세금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송출 서비스 전반)를 겨냥한 것이라면, 음원을 송출해 광고 이익을 얻는 라디오나 방송사에도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에 해당하는 세금은 올리고, 전통적으로 수익을 취하던 기관은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 시카고에서도 있었다. 시카고에서는 오락·유흥 시설이나 그 장소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티켓 판매자의 경우 요금의 9%를 오락세Amusement Tax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이를 영화·음악·게임·쇼핑 플랫폼에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역시 오프라인에서 걷던 세금이 줄어들면서 내놓은 방편으로 해석된다. 시카고의 오락세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 포함된 2015년 1억 4,600만 달러(한화 약 1,918억 원), 2022년 2억 3,200만 달러(한화 약 3,048억 원)가 걷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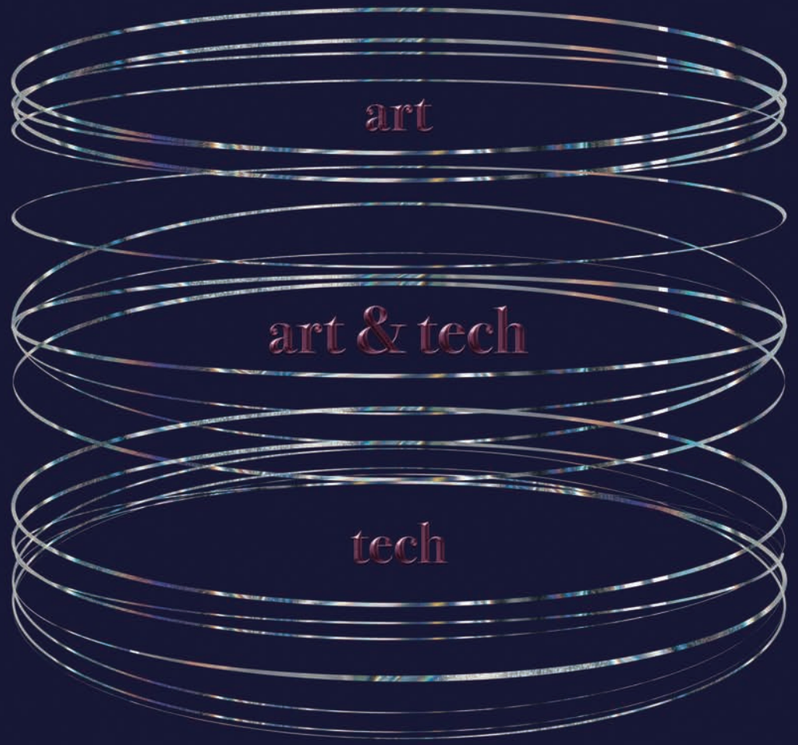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한정한 세금은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서는 스위스 4%, 덴마크 5%, 포르투갈 1% 등 특별세를 걷고 있다. 이미 유럽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20%를 비롯해, 영국 20%, 아이슬란드 24%, 노르웨이 25%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한정한 과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과세 논의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과세가 이뤄질 확률도 있다. 시장이 워낙 큰 데다, 과거 국내 업체 한두 곳이 점유하던 음원 스트리밍계가 개방되며 다양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며, 1월 말 애플 뮤직 클래시컬Apple Music Classical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만약 정부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과세를 생각한다면, 앞서 갈등이 일어난 시카고와 프랑스 사례의 후속 여파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정치적 제스처나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음악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넓혀갈지, 혹은 세금 부과가 그 다양성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우리 대중이 해외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국내 플랫폼이나 오프라인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음악을 발견하고 누릴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므로.

2024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Unfold X



• 지원대상

A트랙(신진)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발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 데뷔 5년 미만의 단체

B트랙(중견)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발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 데뷔 5년 이상의 단체

※ 융합예술 프로젝트 예시: 디지털 미디어,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프로젝션 맵핑, 게임, 모션 인식 및 기타 스테이지 기술 등

※ 데뷔 기준: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융합예술 프로젝트에 한함) 활동을 의미함

※ 학내 활동 및 졸업작품은 데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자격

구분	내용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 및 발표하고자 하는 데뷔 5년 미만의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창작 및 발표하고자 하는 데뷔 5년 이상의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A트랙(신진)	- 직접지원금(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발표 공간 제공 및 통합 홍보지원 ※ 24년 9월~11월 중 진행 예정 / 장소 추후 선정자 대상 안내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B트랙(중견)	- 직접지원금(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5천만원**) -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4" 참여 (※필수사항)를 통한 결과 발표 및 통합 홍보지원 ※ 24년 9월~11월 중 진행 예정 / 장소 추후 선정자 대상 안내

SEOUL MY SOUL | 서울문화재단

culture

삶의 책장을 넘기며
새해의 어느 맑은 아침에
믿을 만한 영양제 안내서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등시대적 고전 읽기
자신 안에 묘지를 짓는 삶,
욘 포세의 예언적 통찰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기품과 관조의 자세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선, 넘을까 말까

illust ©slowrecipe

새해의 어느 맑은 아침에 믿을 만한 영양제 안내서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손정승 『아무튼, 드럼』 저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을 것 같은 사람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삶을 정성껏 가꾸는 이는 응당 영양제를 15종씩 먹을 것 같다거나 덜렁대는 친구는 어쩐지 영양제도 까먹을 것 같다든가 하는 편견이 조금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으로 친구가 먹는 영양제를 맞추려 들면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오지은 작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홍대 인디신을 크게 주름잡은 뮤지션으로서 내 인생의 어느 시절을 깊이 함께한 음악을 짓고 부른 사람. '홍대'와 '영양제'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 싶은 내 생각과 달리 저자는 매일 꼬박꼬박 영양제 13알씩 챙기는 사람이었다. 영양제만을 위한 서랍을 두 개나 내어주면서 말이다. 나는 음악가가 음악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에 작가가 말하는 영양제 이야기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1번 서랍에는 빡빡한 기준을 통과한 영양제가 들어 있다. 내 몸이라는 경기장에서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다. (…) 그리고 서랍을 위한 서랍, 그러니까 2번 서랍에는 그 외 영양제들이 들어 있다. 영입할 때는 활약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택받지 못하는 친구들이다.
→13~14쪽

이에 비해 내 영양제들이 머무는 장소는 단출하다 못해 사실 없는 자리로 봐도 무방하다. 부엌 한구석에 아주 조금씩 유랑하는 모양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비타민과 비타민D, 유산균과 오메가3다. 자,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가지고 있다고 했지, 챙겨 먹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 부지런히 움직여 이들 중 두 가지 정도를 짝지어 삼킨다. 이 모든 영양제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 정확히 2년 전부터 생일이나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면 영양제가 선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되다니!' 은근하게 놀랐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양제 선물은 매번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조금 난감할 때도 있었다. 비슷한 영양제가 동시에 들어와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고, 엄마는 큰 알약을 먹지 못해 그 영양제는 아빠에게로 넘어갔다. 나는 루테인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마그네슘을 먹으면 악몽을 심하게 꾸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토록 작은 알약과 가루에 대한 개개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영양제 선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싶었다. 책에도 영양제 선물에 대한 어려움이 나오니 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출간이 더욱 반가웠다. 모르긴 몰라도 연초엔 영양제 구매율이 분명 오를 텐데, 그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를 영양제를 선물하는 대신 이 책을 건네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법 많은 양의 영양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말하듯이 같은 설명도 영양제 회사의 말은 찰떡같이 이해돼도 백과사전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양제 회사의 홍보 문구조차도 때때로 갸웃거리며 읽는 내게 이 책은 믿을 만한 안내서였다.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은 사실 식물 이름이며, 다른 간 영양제인 줄 알았던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에 포함된 성분명이라는 것, 프로폴리스는 플라보노이드의 함유량이 중요한데 플라보노이드란 우리가 아는 이름인 카테킨과 동일하다는 것… 늘 헷갈려서 둘 다 구매하거나 아예 몰랐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책만 있으면 앞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저자는 이 명쾌한 정보에 트위터리안으로 쌓아 올린 깊은 내공의 유머를 곁들여 독자를 쉴 새 없이 웃긴다. 웃음이야말로 돈도 안 드는 만병통치약이자 만능 영양제 아니던가. 나는 영양제 관련 책을 탐독하면서 이미 영양을 듬뿍 보충하고 있었다.

정화수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에게 정화수나 장독대가 핵심이 아니듯, 나에게도 비타민D의 효능이 핵심이 아니다. 그 마음이 이뤄내는 것들과, 마음에게 영향받은 나의 선택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영양제를 먹는 마음이다.
→136~137쪽

『아무튼, 영양제』는 영양제의 효능을 간증하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나와는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계속 부지런히 돈다. 드럭 스토어와 해외 직구의 세계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구매'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낯선 영양제를 몸에 넣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비타민B·C·D와 매스틱 검, 리포조말 비타민과 프로폴리스를. 이것은 신뢰와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다. 이 영양제가 적어도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엔 '반드시 이걸 먹고 지구 최강의 인간이 되겠어!' 하는 기대가 아닌 '아니면 말고…', '그냥…'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나는 이 정신이 특히 좋았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아님 말고'의 정신을 자주 잊은 채 지나치게 치열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애석하게도 이런 마음은 몸과 마음에 썩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자는 약사도 의사도 제약회사 직원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영양제의 본질과 복용법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복용하는 사람이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서는 부엌에 오종종하게 모여 있는 영양제의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남은 수량을 확인하고, 이왕 본 김에 (아주 오랜만에) 네 가지를 모두 먹었다. 마침 유산균이 거의 떨어졌는데 저자가 사막에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한 비타민B도 함께 사보려 한다.

새해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엔 긴장이 바짝 서린 마음보단 저자가 영양제를 먹는 마음으로 임하려 한다. 이 새로운 일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 내가 이 일에서 원하는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여유, 최선을 다해 도전하되 '아니면 말고'의 정신으로 그냥…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이 마음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낯선 출퇴근 속에서 매일 영양제 열몇 종을 먹은 듯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다.

*칼럼 제목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 제목을 차용했습니다.

자신 안에 묘지를 짓는 삶, 욘 포세의 예언적 통찰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늦가을. 비 냄새 가득한 낙엽이 뒹구는 어느 묘지의 한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이별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그들. 어느새 중년이 되어 우연히 마주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로 알아본다. 두 사람은 어색한 듯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작가가 무대 지시문으로 세심하게 묘사하듯—"서로에게 끌리는 듯 바라[보다 이내] 자제하고,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미소 짓[다 가도] 다시 당혹스러워한다." 그저 때때로 묘비명을 읽으며 '쓸데없는 잡담'만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연신 미끄러지지만, 미끄러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옛 감정은 다시 살아나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고는 묘지를 함께 나선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때때로 서사를 단절하고 비약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흐른다. 내달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묘지를 찾은 남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처를 만나고, 이내 아버지의 장례를 추억하고, 아들의 장례를 기억하고, 마침내는 남자의 장례를 치른다. 모든 일이 이 묘지에서 일어난다. 마치 그 묘지가 누군가의 꿈, 또는 기억인 것처럼.

그렇다. 한 인간의 삶은 자신 안에 묘지를 짓는 것과 같다. 곁에 있다 떠나간 이들이 하나둘 그곳에 묻힌다. 그러나 사랑 또한 이 묘지 안에서 움튼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틀어놓는다.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흐르지만, 그 이후 일상의 시간은 마치 사랑이 지연시킨 시간을 회수하듯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런 것이 '인생'에 대한 인간의 감각일 터.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욘 포세Jon Fosse의 대표작 「가을날의 꿈Draum om hausten」1999(『가을날의 꿈 외』, 지만지드라마, 2019)은 이처럼 논리적 언어에 쉬이 담기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탁월하게 포착한다. 포세에게 다시금 매혹된 나는 국내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의 각색 작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극작가의 작품세계는 때때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썼는가보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썼는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가 소포클레스Sophocles · 라신Jean Racine · 마리보Pierre de Marivaux ·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 입센Henrik Ibsen 등의 작품을 각색한 바 있다고 일러주었지만, 희곡 전문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은 희곡집 『Fosse: Plays Five』(Oberon Books, 2011)에 수록된 「텔레마코스Telemakos」2004뿐이었다. 희곡집에는 "오래된 고전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창조"했다는 간단한 소개뿐. 노르웨이어로 된 소개까지 번역해본 결과, 이 작품은 유럽 극장 네트워크가 극작가 14명에게 호메로스Homeros의 『오뒷세이아Odyssey, Odýsseia』(기원전 8세기)를 바탕으로 하는 단막극을 의뢰해 집필됐으며, 2005년 공연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라니? 『오뒷세이아』는 '오뒷세우스의 모험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던가.

총 24권으로 구성된 『오뒷세이아』의 첫 4권은 오뒷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즉 「텔레마키아Τηλεμαχία」이긴 하다. 그러나 「텔레마키아」는 그다지 박진감 넘치는 서사가 아니다. '4권까지 계속되는 아들 이야기에 지쳐 책 읽기를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 실제로 수많은 창작자들이 『오뒷세이아』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창작했으나, 텔레마코스에 주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페늘롱François Fénelon이 『텔레마코스의 모험Les Aventures de Télémaque』1694이라는 교육소설을 출간한 바 있으나, 이 또한 텔레마코스와 동행하며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르, 즉 '멘토Mentor' 역할에 주목한 경우다. 결국 텔레마코스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야기 밖에서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셈이다.

욘 포세는 그런 텔레마코스에게 주목했다. 게다가 여느 극작가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선택을 했다. 「텔레마키아」 4권 중에서도 가장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1권의 내용을 택한 것. 트로이전쟁이 끝난 지 오래인데도 오뒷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그가 죽었다고 지레짐작한 젊은 남자들이 궁전의 대들보가 들썩이도록 먹고 마시며 가산을 거덜내고 있는 가운데, 오뒷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명민하게 무도한 구혼자들을 속여왔는지가 밝혀지기도 이전, 변장한 여신 아테나를 만난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이전, 그러니까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쓴 것이다. 심지어 1권에 등장했던 아테나의 방문도, 가인singer의 노래에 터져버린 페넬로페의 눈물도, 구혼자들에게 폭발하는 텔레마코스의 분노도, 포세의 「텔레마코스」에는 없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텔레마코스, 페넬로페, 구혼자, 가인,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해 지난 몇 년 동안 무수히 반복됐을 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재한 오뒷세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띄엄띄엄 이어지는 가운데, 구혼자는 맥주를 홀짝이고 가인은 노래를 부른다.

"아빠가 떠났어요. 일곱 바다에서 길을 잃었죠.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포효하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나요?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어디 계신가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우리가 부탁하는 건 단 한마디. 아빠 어디 계세요?"

가인은 텔레마코스에게만 들려주나, 다시 듣기를 청하는 구혼자의 부탁에, 뒤늦게 도착한 페넬로페의 청에, 이 노래는 여러 번 반복된다. 심지어 텔레마코스와 가인이 떠나고 난 후에는 페넬로페와 구혼자가 나란히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노래한다. 갈등해야 마땅한 두 인물이 마치 무료한 시간을 함께 견디는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그리움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이다.

본디 전통적으로 희곡은 인물의 목표와 행동, 갈등과 사건을 중시하는 법인데, 포세는 참으로 기이한 선택을 한 셈이다. 「텔레마키아」를 택함으로써 모험을 떠났다가 귀환하고, 귀환해 복수하는 영웅이 아니라 집에 남아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와 같은 범인凡人의 시간을 담아냈으며, 심지어 새로운 만남도, 감정의 격동도, 인물들 사이의 갈등도 생략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기이하고도 용감한 이 선택은 절묘하게도 『오뒷세이아』의 핵심을 포착한다. 서양고전학자 강대진이 『세계와 인간을 탐구한 서사시: 오뒷세이아』(아이세움, 2009)에서 말하듯, 『오뒷세이아』는 '전후戰後문학'이다.

"불멸의 명성을 앞세웠던 영웅들은 모두 트로이 전장에서 사라져 버렸[고] 참을성과 현명함으로 살아남아 무너진 집과 고향을 회복하는 것이 새 시대 인간들의 과제다. 과제치고는 소소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일 것이다."

과연 이것은 우리 삶의 진실이다. 「가을날의 꿈」과 「텔레마코스」를 함께 놓고 말하자면, 생의 어떤 시절 우리는 세계를, 그리고

시간을 능동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시간의 흐름에 무력하게 휘말린다. 그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감수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자 가장 격렬한 행위인 시간 말이다. 게다가 '능동적 행위자'로 군림했던 인간과 '수동적 감수자'로

여겨지던 자연의 자리가 역전된 이 시대, '함께 감수하는 삶'이라는 포세의 통찰은 진정 이 시대의 철학이다. 어떤 동시대성은 이토록 예언적이다.

*'오뒷세이아', '오뒷세우스' 표기는 천병희·이준석의 번역을 따랐습니다.

기품과 관조의 자세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무엇이 그리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니 고상함을 좇느라 그랬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Krystian Zimerman의 내한 독주회 객석에 앉아 깨달았다. 품위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절망과 피로감을 가져다주었음을. 대체로 싸워야 하고, 이겨서 가져야 하고, 죽이거나 드러내야 하는 세계에서 '아, 역시 별수 없지'라며 정당화와 합리화를 하던 순간마다 야금야금 갉아 먹힌 그 마음을. 실망이 반복되면 회복의 탄력은 사라진다. 지메르만이 연주하는 쇼팽의 작품을 들으며 닿고자 했던 이상을 다시 확인했다.

지메르만은 그렇게 '기품'이라는 단어를 객석에 뭉게뭉게 밀어 넣더니 어떻게 마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지 그 해답도 제시했다. '관조'. 서두르고 또 비난하다 넘어지고 좌절하던 나에게 관조의 자세를 행해 보인다.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것.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며 인내할 것.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침잠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름다운 가르침. 쇼팽과 드뷔시·시마노프스키와 앙코르곡으로 이어진 라흐마니노프·슈만까지 내 안에 지적 자양분을 꾹꾹 눌러 담고 돌아와 연초에 어울릴 만한 피아노곡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가볍고 활기찬 시작도, 비장한 시작도 모두 좋지만, 요란하지 않은 차분한 시작도 의미가 있으니.

고요한 밤으로부터

쇼팽은 특히 기품과 관조가 어울리는 작곡가다. 170센티미터에 마른 체구였던 이 예술가는 많은 이가 들어찬 큰 홀에서 뽐내듯 공연하는 걸 싫어했다. 살롱 음악회 같은 작은 규모의 연주를 선호했다. 바흐와 모차르트를 존경했으며, 동시대 함께 활동했던 슈만의 지나치게 감성적인 면모, 리스트의 화려한 대중성은 버거워했다고 기록돼 있다.

쇼팽은 당대 손꼽히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작곡가로서도 피아노라는 악기를 중심에 둔 채 여러 악기의 소리를 응집하듯 작품 목록을 확장해갔다. 쇼팽의 피아노곡들은 큰 소리를 내는 법 없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구사한다. 정교하게 압축된 형식으로 음악적 의미를 깊이 파고든다. 화려하기보다는 세련된 기술을 창조해냈으며, 감정 과잉 없이 절제된 언어로 아름다운 시를 그려간다.

녹턴 9번 중 두 번째 곡은 작곡가 생전에도,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쇼팽의 대표곡이다. 언제 들어도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선율을 새해의 풍경 속에 다시 걸어본다. 3박자의 우아한 반주와 뻗어나갈 듯 뻗어나가지 않고 온화하게 맴도는 오른손의 선율이 작고 따뜻한 빛이 감도는 어느 밤으로 듣는 이들을 데려간다. 무대 위 지메르만은 담백하고 깔끔한 해석을 들려주었는데, 거의 모든 피아니스트가 사랑하는 곡이니만큼 선택지가 많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이 남긴 섬세한 기록물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조성진의 황홀한 연주까지 역사가 이어진다.

조성진이 연주하는 쇼팽 녹턴 Op.9 No.2

쇼팽은 녹턴·왈츠·폴로네즈·전주곡·연습곡·변주곡·발라드·스케르초·소나타 등 포괄적인 제목을 붙인 피아노 작품을 200여 곡 가까이 작곡했고, 거의 모든 곡이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네 개의 발라드 중 마지막 곡은 특히 감정의 밀도가 높아 긴 여운을 남긴다. 서주와 두 개의 주제를 변형시켜가는 가운데 명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격렬한 열정,

그리고 갑자기 흐르는 적막을 대비시키며 완벽한 몰입을 이끈다. 영국의 평론가 조앤 치셀Joan Chissell은 이 곡의 도입부를 두고 "난생처음 세상을 보게 된 맹인이 느낄 법한 경이로움을 전해 준다"고 묘사했다. 지메르만의 1980년대 오래된 녹음이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 남아 있다.

따뜻하고 포근한 새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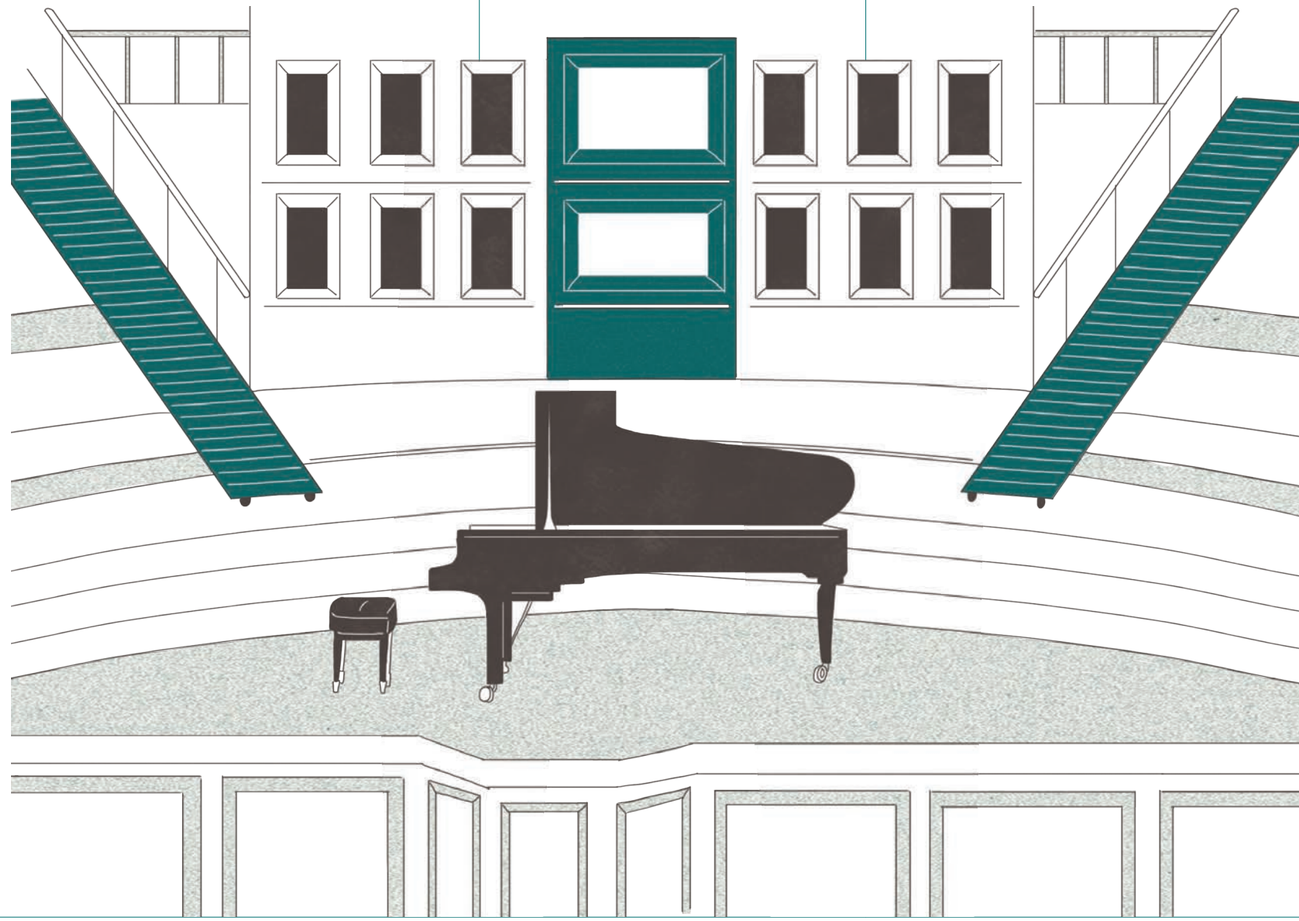
무대 위 지메르만이 연주하는 드뷔시 '판화'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벨 '물의 유희'와 드뷔시 '물의 반영'을 번갈아들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화려했던 파리의 강가에 선 이들이 빛처럼 번지는 감각을 음표로 뒤바꾼 순간들을 상상해본다. 온갖 역사·문화적 모순을 끌어안은 채, 일상과 동떨어진 아름다움을 향한 천착.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쇼팽 발라드 4번

라벨이 1901년에 발표한 '물의 유희'와 드뷔시가 1905년에 쓴 '물의 반영'은 섬세한 아르페지오와 장식음으로 물결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벨이 소나타 구조로 규칙적인 리듬, 또렷한 선율을 들려주는 데 반해 드뷔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를 전개한다. 시각적으로는 라벨이 글리산도와 트레몰로 같은 기법으로 물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드뷔시의 시선은 보다 멀리 있는 느낌이다. 음악의 언어를 쇄신하는 위대한 혁신이 형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신비롭고 또 공허하다. 중요한 일은 때때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메르만의 마지막 앙코르곡이기도 했던 슈만의 '세 개의 로망스' Op.28 2번을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곡으로 담아본다. 악보의 앞머리에 쓰인 지시어는 '단순하게Einfach'. 포근하고 따뜻한 이 짧은 곡으로 '녹턴'이 연 밤을 근심 없이 편안히 닫을 수 있다.



선,
넘을까 말까

박이현 노블레스·아트나우 에디터

‘선을 넘는다’, 통념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구절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에서 선을 넘는다는 표현은 틀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보편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야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최근 선을 가운데 두고 팽팽하게 밀당하듯 양쪽을 넘나드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이들의 특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상업과 순수, 금기와 파격을 오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것. 이렇게 관점의 틈을 유영하는 작업과 마주한 관객은 시각적·지적 유희와 함께 높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여름 석파정 서울미술관을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 디자이너 요시다 유니Yuni Yoshida의 개인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돌아왔다. 그동안 흥행에 성공한 기존 전시를 새로 단장했단다. 2월 25일 막을 내리는 《YOSHIDA YUNI: Alchemy+》는 2023년 신작을 추가하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키리에의 노래〉 포스터를 포함한 240여 점의 광고·뮤직비디오·앨범·북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요시다 유니의 작업은 ‘연금술’ 그 자체다. 흔하디흔한 물질을 귀금속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 아니던가.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한 그의 작업은 보는 이를 착시와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첫인상은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듯하다. 요시다 유니를 일약 스타 반열에 올린 〈Layered〉를 예로 들면, 깨진 픽셀과 영상 재생의 버퍼링 순간이 연상된다. 그러나 작업 기저에는 평범한 오브제를 해체하고 이어 붙이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다. 이는 자연의 그러데이션을 사용해 모자이크를 구현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자연에는 온전히 같은 색과 모양이 존재할 수 없고, 같은 빨간색이라도 여러 가지 빨간색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작품 기획안에 맞춰 자른 큐브 모양의 과일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 완성했어요.”

〈Playing Cards〉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려서부터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작가가 손수 카드를 제작했다. 멀리서 보면 여느 카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네모난 프레임 안에 감자튀김·딸기·블루베리·크래커 등 평소 자주 먹는 식재료가 있음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손끝으로 마무리했다. 수작업을 고수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사람의 손길이 닿은 작품엔 마침표를 찍었을 때의 따뜻함이 느껴져서란다. 흥미롭게도 전시실 곳곳마다 요시다 유니의 작업 과정이 펼쳐져 있는데, 나비효과를 부르는 건 거사가 아닌 작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작가가 몸소 보여줘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DDP에선 시각적 난해함과 모호함이 공존하는 슈테판 사그마이스터Stefan Sagmeister의 《Now Is Better: 지금이 더 낫다》가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디자이너다. 대표적으로 롤링스톤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프론트맨 루 리드, 제이 지 등 팝스타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했다. 그런 그의 작업은 그래미상 앨범 패키지 부문에서 두 번(2005년 〈토킹 헤즈Talking Heads〉, 2010년 〈데이비드 번&브라이언 이노David Byrne & Brian Eno〉)이나 수상한 바 있다.

슈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작가적 성격이 짙은 디자이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캔버스 위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데이터를 녹여 지금이 예전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915년에 번개로 사망한 사람이 50명이었다면, 2015년에는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과 안전 장비의 발전으로 1명만 사망한 점’, ‘1820년부터 2015년까지 극심한 가난에서 탈출한 인구가 늘어난 점’ 등이 주요 재료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작품도 있다. 강대국이 전쟁을 벌인 비율,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차에 갇혀 있는 시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Now Is Better: 지금이 더 낫다》에서 그가 빌린 데이터는 회화뿐 아니라 렌티큘러, 디지털 캔버스, 손목시계, 컵 등에 새겨져 있다. 텍스트로는 단순하게 다가오겠지만, 슈테판 사그마이스터의 작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소 난해하고 모호하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친 탓인데, 해석하려면 리플릿이 필수다. 리플릿에 적힌 데이터 해설을 숙지해야 작업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전시실에 들어서기 전 입구에서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 주인공은 대림미술관에서 3월 말까지 《MSCHF: NOTHING IS SACRED》를 개최하고 있는 아티스트 콜렉티브 미스치프. 서촌에 상륙하기 전 미스치프는 데이미언 허스트·앤디 워홀 등의 작품에 도발적 시도를 한 작가로 알려졌으나,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이후 뉴스 사회면에 등장하는 화제의 인물이 됐다. 낙서범이 범행 후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나는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남겼기 때문. 심지어 낙서범은 전시실에 설치된 작업 〈MSCHF Wholesale〉의 모자도 훔쳤다. 대담한 범행 덕분(?)인지 미스치프는 12월 중순 포털사이트 검색량에서 측정 최대치인 100을 기록했다.

정녕 낙서범과 미스치프는 같은 범주로 묶이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낙서범은 자기 행동을 예술로 포장했지만, 미스치프의 행위는 무분별한 절도·훼손과 거리가 멀다. 대신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접 구매한 유명 작품을 리폼한 뒤 재판매했다. 그중 3만 달러(한화 약 4천만 원)에 사들인 데이미언 허스트의 〈L-Isoleucine T-Butyl Ester〉2018 속 88개의 점을 오려내 하나당 480달러(한화 약 65만 원)에 판매한 일은 희대의 사건으로 꼽힌다. 더욱이 구멍이 뚫린 전체 틀도 경매에 출품, 7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 앤디 워홀의 〈Fairies〉1954는 위조품 999점과 뒤섞어 모두를 미궁에 빠지게 했다. 이러한 기행은 일종의 불문율로 여기는 예술적 관습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껏 그러려니 했던 관념에 물음표—예컨대 ‘개인 소유의 미술품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작품 가격과 가치는 비례하나?’, ‘진품과 위조품이 주는 감동의 차이가 있을까?’—를 던지게 된다.

이외에도 《MSCHF: NOTHING IS SACRED》에서 미스치프는 경제·의료·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건드린다. 내용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은 접어두시라. 작업은 IT 기기, 브랜드 의류, 비용 청구서 등 익숙한 대상을 소재로 채택해 접근 문턱을 낮췄다. 미스치프는 “우리의 예술은 갤러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다. 관객은 전시를 즐기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읽으면 된다. 미스치프의 프로젝트를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회 시스템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독자 의견에 주어진 질문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서울] 책자가 너무 고급이네요. 장기 소장용 책자도 아닌데 종이를 지나치게 고급지로 사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적당히 합리적인 품질로 제작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세희 님

독자께 드리는 답 [문화+서울]을 꼼꼼히 살펴봐주시는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서울]은 종이 잡지에 따르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며 친환경적인 제작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자의 내지 용지는 흔히 '중질지'라 불리는 모조지로, FSC는 물론 PEFC, 그리고 환경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인쇄용지 사용하기보다, 내구성과 인쇄 품질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용지를 채택해 표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은 매월 발간되나 그 내용은 한 달간만 유효하지 않기에, 읽으신 책은 또 다른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면서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RIBUTOR

작년 3월 문화+서울이 새단장한 이후 벌써 일 년이 지났네요. 매호 독자와 첫인사를 나누는 반짝이는 표지. 많은 고민 끝에 채워지는 내용들. 모든 과정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주시는 디자인이끼와 편집위원님, 글과 사진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최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는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건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쥐기 위해 에너지를 쓰기보다,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자 한다'는 소프라노 박혜상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또 다음 호를 위해 숨 한번 크게 쉬고 달려가겠습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THANKS TO

얼마 전 면역력 회복에 좋다는 영양제 아연을 선물했고, 1월 초에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공연에 다녀왔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칼럼 필자들과 뭔가 통한 기분. 이 자리를 빌어 항상 흥미로운 주제로 좋은 글 써주시는 [문화+서울] 칼럼 필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전민정 편집위원

COMMENTS

1월호에 실린 오은 님의 칼럼 '새해에 들어차는 것—새물'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편집팀에 전하는 한마디 친구의 아버지께서 70대이신데,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요가를 배우신다고 하네요. 제 선입견을 깨는, 취미를 즐기시는 모습이 오히려 제게 영감을 주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20대 근육남, 인디록을 좋아하는 중년 여성 등등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 사례를 다루는 글이 있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예나 님

CONTRIBUTOR

서울에서 신년음악회를 마치자마자 또 다른 리사이틀을 위해 해외로… 쉼없는 일정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소프라노 박혜상과 ANRC 이강원 이사, 김지현 매니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재기발랄한 미소로 독자를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표지를 독자께 헌정하며.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4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1544-3412) 재충전 가능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문 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금 문화누리카드 SNS채널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dvoucher.kspo.or.kr)도 사용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문화누리